SEP 1 4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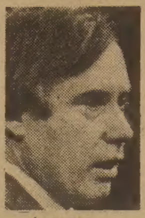
No. 926 1982년 9월 13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September 13,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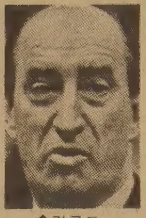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외무장관에 매케큰

트루도, 주요장관4명 자리바꿈


◆맥기건


◆랄롱드

◆크레치엔

(오타와)트루도수상은 10일오전 앨런·매케큰재무장관을 포함, 4명의 연방각료들을 경질했다.

이날 발표에 의하면 매케큰재무장관을 외무장관으로, 막·랄롱드에너지장관은 재무장관으로, 장·크레치엥법무장관은 에너지장관으로, 막크·맥기건외무장관은 법무장관으로 각각 자리를 바꾸었다.

이번의 조치는 트루도수상이 구상하는 2단계 내각재편성의 1단계조치로 내달중 있을 2단계 조치는 보다 규모가 큰, 사실상 모든 주요각료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2차개각에서는 상당수의 각료가 탈락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이 대거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케큰재무장관이 외무장관으로 기용된 것은 뜻밖의 조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매케큰재무는 지난해 11월예산에서 기업및 노조간부들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아, 외무장관과 같은 힘들고 말많은 자리로 옮겨질 것으로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외무장관직을 거친 매케큰장관은 전에 과오없이 외무업무를 수행한 외에도 9일 토론토에서 폐막된 제37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례총회와 같은 국제회의를 잘 처리해낸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정계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 개각 내용 ◆

◉외무=앨런·매케큰(재무)
◉재무=막·랄롱드(에너지)
◉에너지=장·크레치엥(법무)
◉법무=마크·맥기건(외무)
( )은 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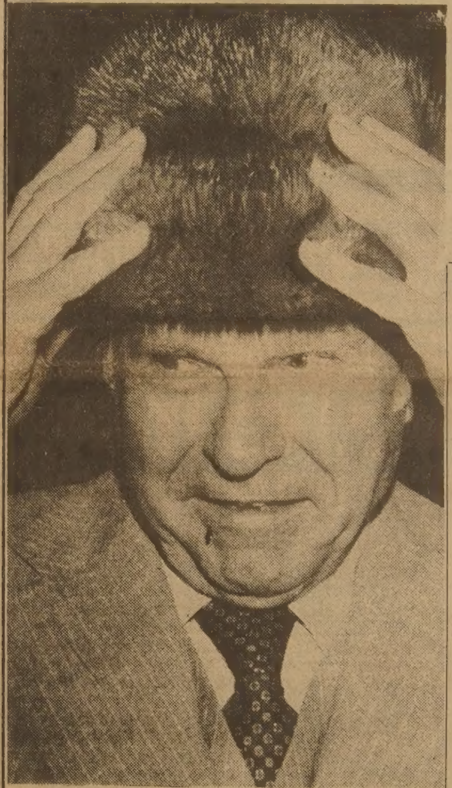
랄롱드장관이 재무장관으로 발탁된 것도 예상밖의 일로 그는 말썽많은 국가에너지계획(National Energy Program)의 입안과 알버타주와 새로운 석유가홍정등 그의 에너지정책은 많은 기업인들과 외국투자가들의 빈축을 사왔지만 그의 넓은 식견과 추진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편 법무장관에서 자리를 옮긴 신임 크레치엥 에너지장관은 법무장관시 헌법에 관련된 많은 논쟁을 잘 처리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왔으며 특히 서부 캐나다에서도 인기가 있는 몇 안되는 각료중 한사람이다.

트루도수상이 그를 에너지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서부캐네디언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에 대한 소문은 오타와정가에 수주전부터 떠돌았었다.

트루도수상은 개각을 싫어하는 성품. 80년2월에 수상직에 복귀한뒤 지난해 9월에 각료수를 36명으로 4석 늘린 것을 포함, 비교적 소규모 내각개편을 해왔다.


◆신임 외무 알렌·맥케큰 : 그가 재무장관으로서의 마지막 중요역할중의 하나는 9일 토론토에서 폐막된 제37차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년차총회를 무사히 치르는 일이었다.
핀랜드은행장이 선사한 털모자를 쓰고 있다.

한국고유의 수침술

일본학자가 소련에 보급

(서울)현재 캐나다, 미국, 서독, 그리스와 호주등지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한국고유의 수침술이 일본침술학자에 의해 공산국가 소련에도 보급되게 되었다.

수침술이란 조상전례로 전해 내려오는 침술의 한 부분으로 병을 치료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손바닥과 등에 약400개의 침을 꼽는 침술기법이며 1971년 한국수침술연구원장인 유태우씨에 의해 현대 한의학으로 발전되었다.

10일 한방학계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대학 교수인 니주어·야수박사는 소련보건성 주최로 9월11일부터 20일까지 모스코바에서 열리는 연례 일·소 침술심포지움에서 한국의 수침술이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후 시범을 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수박사는 1978년 유태우씨로부터 수침술기법을 배웠으며 최근 한국을 방문, 유씨의 허락을 받은후 참고관계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7일 쉐라톤센터에서 열린 IMF총회 본회의에서 강경식재무장관이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고 있다. 강장관은 이날 하오3시 사회봉을 두드리며 회의 개시를 선언하고, 남아연방국(사우스·아프리카)등 각국 대표가 연설차 등단할때마다 간단히 소개했다. 강장관은 이날 IMF 이사선거도 능숙하게 주재했다.

IMF 의장 한국지원 확약

한국대표단 시카고 향발

(토론토)국제통화기금(IMF)의 전무이사겸 집행위원회의장인 J·더·라로지'에씨는 9일 오전 강경식재무장관과 만나 한국의 현경제정책 방향에 만족을 표하고 IMF는 경제개발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임을 확약했다.

강장관과 라로지에 집행위원장은 9일 오후 폐막된 제37차 IMF—세계은행(IBRD) 연례회의가 열렸던 토론토 쉐라톤호텔에서 약30분간 상호 의견교환을 가졌다.

강장관은 라로지에 집행위원장이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노력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강장관은 A.W.크라우센 세계은행 총재와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크라우센 총재는 강장관에게 한국정부가 경제구조를 재조정하기위한 일련의 정책조치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것으로 IMF한국대표단의 한 고위관리가 전했다.

이 관리는 이어 크라우센총재가 한국이 현재의 정책노력을 계속, 성공적인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될것을 회망한다고 말했다.

강장관일행은 9일 오후 IMF—IBRD총회를 마치고 시카고로 떠났다. 이들은 9월18일 귀국할 때까지 미국의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미국의 실업·금융계 인사들에게 한국경제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10월12일 연방보궐선거 대비〉

보수당 패치스 후보 지명

브로드뷰·그린웃지역, 피터·워딩턴 고배

밥·뢰가 온주 신민당당수로 피선, 연방의원직을 사퇴한뒤 공석이 된 브로드·뷰 — 그린웃지역 보수당 후보로 정치자문인 윌렴·패처스씨가 지명됐다.

오는 10월12일 있을 연방보궐선거에 대비한 후보를 선출한 9일밤의 보수당 전당대회는 토론토·선지의 편집장 피터·워딩턴이 1차투표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었으나 워딩턴이 출마 2일전 입당한 점이 반 워딩턴 운동을 일게 해 2차투표에서 64표차이로 탈락했다.

2차투표의 결과는 패치스 1,097표, 워딩턴 1,028표, 임페리얼석유사장 로날드·리치 13표, 컴퓨터·테크니션 길트·뮈르 4표였다.

◆후보로 지명된 빌·패치스씨

온주 소비자·상업관계성 장관 로버트·엘지장관 정치자문으로 일하는 패치스씨는 1차투표에서 981표로 1,125표를얻은 피터·워딩턴에 뒤졌으나 2차에서 그리스계인 조지·블라호스씨의 표 351표를 업고 가까스로 이겼다.

브로드뷰·그린웃 지역은 그리스인 비지니스가 많은 지역으로 토론토에서 거리이름이 그리스어와 영어로 표기된 유일한 지역다.

그리스계 당원들의 세력을 업은 조지·블라호스씨는 2차투표에서 포기했다.

1차에서 최다득표했던 워딩턴씨는 토론토·선지를 키워온 인물로 그의 예리한 편집능력은 선지 발전의 주원동력이 됐었으나 선지가 매클린·헌터사로 넘어간뒤 사임, 보수당 연방의원 입후보 의사를 표명했었다.

워딩턴의 패인은 정계신참이며 당 경력이 없는 점과 입후보마감 2일전 보수당에 입당했었고 뿐만아니라 이 지역주민이 아니란 점에서 불리했다.(그는 영과 세인트·클레어 지역인 히스·스트릿에 거주)

이 선거구는 1962년 이후 신민당이 석권해온 점이 특징, 이번 선거의 신민당 후보는 사회학자인 린·맥도날드, 자유당 후보는 변호사 데이빗·오코너이다.

오는 10월12일 연방 보궐선거는 이 지역외 테미스캐밍지역과 리즈— 그렌빌지역등 3개 선거구에서 실시된다.

조·클락 보수당당수는 9일 "이번 선거가 자유당을 보수당이 세력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단계"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금주의 행사▷

(9월13일~19일)

◆13일(월) 교사채용 접수마감
미시사가 한글학교
연락처: 274-6127

◆18일(토) 이화여대 동창총회
곳: 20 Albion Ave, Scarboro
(698-3778·Mrs.윤)
연락처: 536-4250(Mrs. Lee)

◆18일(토) 상오11시 라이언스클럽 골프대회
곳: Richmond Hill 골프클럽
연락처: 298-3584(이기훈)

◆19일(일) 하오5시 장로장립·권사취임 예배
곳: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7 Grepa Ave, Tor.)

오늘의 예금금리

기 간	한인신용조합 일반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		12.5%
90일	13.5%		13 %
180일	13.5%	13.5%	13 %
365일	13.5%	13.5%	13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시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하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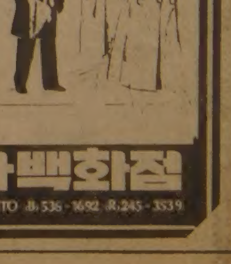
은하 보석
ROLEX
가장 길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각종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UNPAINTED FURNITURE
FOR SALE
CONTENTS OF FACTORY

DRESSER $88.00
NIGHT TABLE $29.95
36" x 72" $98.00
BOOKCASE 36" x 36" $29.95
DESK $69.95
★ 믿을수 없는 가격
★페인트 칠없는 나무그대로의 원제품 가구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레스토랑·사무실등에 각종비품 대량공급.
한번들려주세요.
MANY OTHER ITEMS AT SIMILAR SAVINGS
BUNK BEDS $99.95
MATTRESSES TWIN DOUBLE $49.95
NORTH PARK DISTRIBUTORS
3368 YONGE ST. 488-7911
(7 Blocks North of Lawrence)

OMEGA
오메가시계 남·녀용

가을맞이 대매출
세일기간 : 9월10일부터 19일까지
오전10시~오후9시까지
※세무, 가죽제품,
섬유원피스,
브라우스, 바지등.
50% OFF
물세무(남·녀용)
코트·투피스

LONDON FOG
(런던·포그)
남·녀코트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B 536-1692 R 245-3539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 Library
University ..., Ont
M5S 1A5

대학동창회 창단 움직임

"기성세대와의 가교역할"기대

온타리오주의 각 대학 졸업생 또는 1년이상 취학했던 전 재학생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인대학생회 동창회가 창단된다.

김의명, 이병룡씨등이 금년 1월부터 논의, 지난 4월에 20명의 발기위원회를 조직한 이 동창회는 오는 25일(토) 하오7시30분 토론토대학교 중앙도서관(로바츠·라이브라리) 부속 라이브라리·사이언스·빌딩 7층서 창립총회를 갖는다.

78년에 토론토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8일 동창회 창립의 의의를 "이곳에서 수업한 분들과 기성 한인사회와의 가교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의하면 온타리오주에는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 한인대학생회(KUSA)가 있으나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회원이 아니므로 졸업생들의 모임을 갖는 것은 회원간의 친목, 선후배간의 유기적 관계유지뿐 아니라 이곳서 배운 지식을 한인사회나 캐나다사회 발전에 제공한다는데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졸업생뿐 아니라 대학에 1년이상 재적했던 자도 회원이 되며 세네카·칼리지, 죠지 브라운·칼리지등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같은 동창회는 주로 한국서 교육 받은 자 중심의 기성 한인사회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발기자들은 보고 있다.

가을학기 개강 노스욕 한글학교

노스욕 한글학교 가을학기가 개강된다.

유치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등 4개반으로 나누어지는 가을학기는 9월16일(목) 오후 6시에 개강되며 장소는 Junior High School (70 Maxome Ave.)

성동고 동문회 추계 야유회

성동고교 동문회에서는 추계 야유회를 오는 11일(토) Morningside Park(Morningside & Ellesmere Rd.)에서 갖는다. 연락처는 267-5550.

영남향우회 골프대회

영남향우회에서는 영남향우들 간의 친선 골프대회를 오는 11일(토) 오후1시부터 Richmond Hills Golf & Country Club에서 개최하며 회비는 $35.

한인볼링협회 12명이사진 짜

한인볼링협회(회장 정용필)는 82-83년도 이사진을 짰다.

12명으로 구성된 이사진은 아래와 같다.

이사장: 이상수

이 사: 강치영·민경량·이종헌·전기덕·표봉현·강준남·김정웅·이봉수·오기환·최호영·홍명원

이스라엘 또 공격

아랍및 이스라엘지도자들이 각각 광범한중동평화안을 토의하는 가운데 다시 레바논내에서 시리아군과 이스라엘군간에 제2의 충돌이 발생, 긴장이 고조되고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8일 레바논영내의 시리아군 대공미사일들을 공격, 파괴했다고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이 발표했다.

베긴수상은 이날 의회연설을 통해 『이스라엘항공기들은 레바논에 시리아군 지대공미사일들을 파괴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시리아가 레바논영내에 미사일을 배치하지못하도록 다시 경고한다』고 말했다.

첫 관광회사 탄생

모국동포들 관광 도맡아

토론토 최초로 교포 3명이 관광회사를 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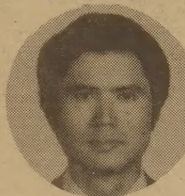
지난 4일 649A 블루어·웨스트 제일여행사 2층에서 가진 개업파티에서 김연태 대표(32)는 토론토 한인사회에 전문적 관광업이 없음에 착안, 동창생들로 구성된 관광회사 「코라메(KORAME)」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동업자 함영호(32), 방충극(31)씨와는 신일고교, 연세대 동창이며, IBM 직장동료 사이라고.

모국정부의 해외여행 제한 완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외국관광, 친지방문등 해외여행을 할 것에 대비, 미국등으로 여행오는 모국동포들의 캐나다 관광을 주선하며, 캐나다 교포들의 국내관광, 단체여행, 모국등 해외여행 주선, 수속대행, 안내등을 맡는다.

모국의 해외여행자들 유치를 위해 지난 7월 서울을 방문한 김연태씨는 여러 여행사와 교섭, 미국관광 모국동포들이 토론토에 들리도록 주선했다고 말했다.

◆대표 김연태씨



◆동업 함영호씨

한인老人患者 위해 특별유니트를 設置

韓人의사·간호원등 고정배치 서비스

〈시카고지사〉 시카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미국인 널싱 홈이 한국인 고령 환자들을 위한 특별 유니트를 설치한다. 「Lakeland Manor」널싱 센터(820 W. 로렌스)는 한국계 노인환자들이 언어장벽, 음식, 문화적 배경등의 차이 때문에 독특한 널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데 착안, 이프로그램을 시작하게됐다.

72년에 신축한 최신 시설의 이 널싱 홈은 4층건물 3백60개의 환자 베드중 한 층(2층으로 예정)을 완전히 한국계 노인 환자들이 차지하게 하고 한국인 의사1명, 간호원3명(3교대 24시간 배치), 여가활용지도 전문가1명등을 상임 직원으로 채용하여 서비스하기로 결정한것이다.

동 널싱 홈의 행정관 앤·리차드슨 여사와 컴뮤니티 섭외 디렉터 로리·데이노거사는 31일 『그동안 한인들과의 잦은 접촉에서 한인 노인들에게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특별배려의 배후에는 소설 원저 가재판씨(시영 노인아파트 5040 N. 셰리던 디렉터)의 역할이 컸으며 그가 앞으로 인선과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협조를 하게 될것이라고 데이노여사는 말했다.

시카고의 양노시설 개발 전문회사인 Alden Care, Ltd.의 소유인 이 시설은 종합병원 수준의 환자실및 부대 서비스 설비를 갖추고 중병을 치른 노인 퇴원환자의 단기 간호또는 여생에 걸쳐 치료를 요하는 노인들의 장기 간호를 맡고 있다.

현재는 한인 간호원2명이 있어 한국계 노인 환자가 입원하는대로 「코리언 플로어」가 채워져 나갈 예정이며 한인 노환자들을 위한 특수 활동 스케쥴도 이미 마련돼있다.

폴랜드대사관인질극 끝나

인명피해없이, 범인4명 체포

(스위스 베른)폴랜드정부에 즉각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스위스의 폴랜드대사관을 점거, 5명을 인질로 잡고 있던 4명의 무장괴한들이 스위스 경찰의 특공작전으로 모두 체포됐다.

12분만에 끝난 이 작전에서 인질과 경찰측 모두 인명피해가 없었다.

지난 6일 폴랜드 혁명자치군으로 자처하는 이들 무장괴한들은 대사관에 있던 13명을 인질로 잡고 48시간내에 폴랜드의 계엄과 정치탄압이 중단되지 않으면 인질과 함께 자폭하겠다고 위협했었다.

이들은 점거 2일간 스위스당국과 협상에서 인질 8명을 석방시키고, 10일까지 현금 145만달러와 자신들을 중국이나 알메니아로 안전 피신시켜줄 것을 계엄해제와 아울러 요구했었다.

9일 새벽 괴한들과의 협상에 더이상 진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쿠르트·푸르글러 스위스 법무상은 상오 10시경 음식배달을 가장하고 대사관 문앞에 원격조종 폭탄을 장치, 문을 폭파한뒤 10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특공대 20여명을 동원, 작전 12분만에 괴한 4명을 생포하는데 성공했다.

특공작전을 직접 지휘한 푸르글러장관은 작전 하루전 인질중 폴랜드 무관 1명이 음독자살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작전이 거의 실패로 돌아갈 뻔 했다고 말하고, 폴랜드정부가 이 사건을 정치적 탄압강화의 구실로 삼지 말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탄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온 폴랜드자유노조 솔리대리티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솔리대리티와는 전혀 무관하며, 사건이 인명피해 없이 끝나 안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스위스 관리들은 "비소키대령"으로 자칭하는 괴한들의 두목인 42세의 전과범 플로리안·크루직은 "애국자와 범죄자의 혼합형"으로 자신이 폴랜드군사관학교를 졸업한뒤 62년부터 65년까지 폴랜드 비밀경찰로 일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크루직은 6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보석상을 털다 잡혀 9년형을 치렀고 79년 스위스에 망명을 요청했다 추방된 이후 네덜란드에 거주해왔다.

한·일공동 선두 세계아마추어야구

〈서울 〉한국과 일본이 서울에서 열리고있는 제27회세계아마추어야구선수권대회에서 각각 3승1패로 동률선두를 달리고 있다.

열흘간의 대회경기중 이미 중반전에 접어들은 8일, 한국은 대만을 6대0으로, 일본은 도미니카공화국을 6대3으로 각각물리쳐 강력한 우승후보로 등장했다.

◆스위스의 폴랜드대사관에서 석방되는 3명의 인질들(오른쪽). 왼쪽에 스위스경찰의 부축을 받고 있는 또1명의 또인질을 보고 반가워하고 있다.

「그랜드·슬램」의 꿈 사라져

준준결승서 슈라이버에 2-1 패배

US오픈테니스 이변…챔피언 나브라틸로바 탈락

7일 US오픈테니스 챔피언쉽대회에 이변이 일어났다.

랭킹 1위의 말티나·나브라틸로바가 7위의 슈라이버에게 1-6, 7-6, 6-2로 패배한것. 이로써 윔블던, 프렌치오픈, 오스트랄리아오픈, US오픈을 휩쓸어 명실공히 세계1위에 오르려던 나브라틸로바의 「그랜드·슬램」의 꿈은 이번 US오픈우승시 받게되었던 50만달러의 보너스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슈라이버는 무적 나브라틸로바에겐 징크스와 같은 존재. 슈라이버는 1978년 오픈때에 당시 16세로 준결승에서 나브라틸로바를 꺾어 관중을 놀라게 했었다.

나브라틸로바에겐 이날의 패배가 올해들어 가진 70회 게임중 2번째이며 41회 연승에 브레이크를 건 패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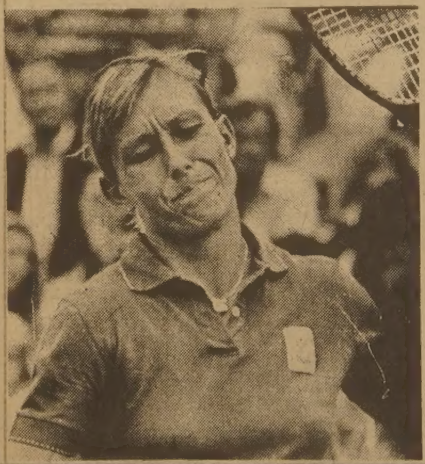
슈라이버는 이날 예상을 뒤엎고 챔피언을 꺾자 『그녀에게 약간 미안하다. 그러나 나자신을 위해서 즐겁다』고 소감을 말했다. 슈라이버는 나브라틸로바와 절친한 친구이자 복식게임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한편 나브라틸로바의 패배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앓은 식중독에서 오는 근육피로병 때문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결과로 크리스·에버트·로이드가 6번째 US오픈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상을 뒤엎는 일은 8일에도 일어났다.

랭킹5위 체코의 한나·만들리코바가 랭킹3위 트레이시·오스틴을 4-6, 6-4, 6-4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한것. 만들리코바는 준결승에서 슈라이버와 대결하게 된다.



결정적실수에 씁쓸

◆결정적 실패를 한 후의 나브라틸로바의 속상한 표정(왼쪽).

승리후 안도의한숨

◆멋진 승리를 거둔후 안도의 한숨을 내뿜는 슈라이버 (오른쪽).

가을철 자전거 스페샬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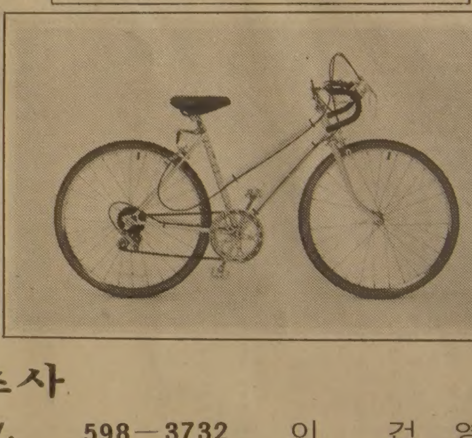
⊙A BICYCLE BUILT FOR YOU

CCM

최고품질의 상품

"어린이용에서 노인용까지"

각종 C.C.M 자전거



브랜돈스포츠사

337 BLOOR ST.W. 598—3732 이 건 영

이제부터 관광은 염려하지 마십시요!

코라메관광(KORAME)이 탄생되었읍니다. 계속해서 캐나다·미국등 각국유명 처소를 찾아 교민여러분을 모시고 유람 예정이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정및 요금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수도 있읍니다.
★기타 관광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환영합니다.

1. 당일관광 (기간 : 9월15일~10월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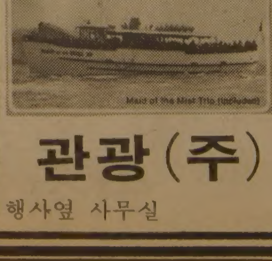
관광지	출발	도착	집합	요금	비고
월 30,000 ISLANDS	9 : 00	20 : 00	코라메사무실	$ 59	관광안내및 왕복교통
화 1,000 ISLANDS	9 : 00	21 : 00	코라메사무실	$ 59	점심, BOAT 유람비용
수·토NIAGARA FALLS	10 : 00	19 : 00	코라메사무실	$ 55	등 포함

*출발은 7인 이상일때 한함.
*개인별관광(4인이하)은 별도문의 바람
*신청마감 : 각 출발일 이틀전

2. 단풍맞이 특별관광—1박2일 (기간 : 9월23일~10월8일)

관광지	출발	도착	집합	요금	비고
매주 30,000 ISLANDS & 목·금ALGONQUIN PARK	목 9 : 00	금 19 : 00	코라메사무실	$ 98 (일인당)	관광안내및 왕복교통, 출발일 점심 BOAT유람, 숙박, PARK입장료포함

*출발 : 10명단위 *숙박 : 2인1실 *신청마감 : 출발일 이틀전



649A BLOOR ST. W.
TOR., ONT. M6G 1L1 ☎ : 535—0853

코라메 관광(주)
제일여행사옆 사무실

김 연태
함 영호
방 충극

대표 김 연태

"25만달러 잭팟이 터졌다"

라스베가스 교포여성 행운

지난6일 노동절연휴에 교포여성이 라스베가스 플라밍고·힐튼호텔에서 25만달러 잭팟이 터진 행운을 잡아 화제.

워싱턴주 타고마시에서 「오리엔탈 기프트」숍을 경영하는 교포 덕자·베켄도프씨는 지난6일 새벽5시55분께 1달러 머신 폿·오·골드에서 잭팟이 터졌다.

이날 덕자·베켄도프씨는 약6백달러로 슬러트머신을 시작했는데 다 털린후 동행한 친구에게 50달러를 꾸어 다시 맞붙은지 15분만에 25만달러짜리 기적을 잡은 것.

이 교포여성은 지난달 31일 친구2명과 여행차 라스베가스를 방문했는데 중간에 교통사고까지 당해 타고있던 차가 대파됐으나 부상자가 1명도 없는 운이 계속 따랐다고.

잭팟이 터지자 호텔측으로부터 『꿈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밝힌 덕자·베켄도프씨는 양노원에 우선 5천달러를 기증했으며 『현재로는 어디에 돈을 사용할지 생각이 나지않는다』고 기쁨에 어쩔줄 몰라했다. (LA지사)

▲25만달러의 잭팟을 터뜨린 덕자·베켄도프씨. 노동절연휴에 라스베가스 플라밍고·힐튼호텔에서 행운을 잡았다. 〈라스베가스〉

金聖鍾 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66>

어떤殺人 ⑬

문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가만히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누구세요?」

「목소리도 잊었니? 여기 부산이야.」

부산에 살고있는 친구 김명자한테서 온 전화였다. 문자는 맥이탁 풀렸다.

「소식이없어 궁금해서 걸었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너 요새 재미가 좋은 모양이구나.」

「재미가 좋긴….」

그녀는 명자가 밉살스러웠다. 자신이 이 지경이 된데에는 친구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여름 부산에 갔을때 친구가 끝까지 행동을 같이 해주었다면 모세(毛世)에게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이 고통도 없을 것이다. 남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판인데 친구는 심심풀이 전화질을 해오고 있다.

「문자야, 이번 주말에 부산에 내려오지 않을래? 겨울 바다 아주 멋지다.」

「싫어. 이젠부산에 안갈거야.」

「왜? 부산하고 웬수졌니?」

「할 이야기 없으면 끊어줘. 나 지금…」

「어머, 너 왜 그러니? 목소리가 힘이하나도없이. 어디 아프니?」

「아니야. 내다음에 전화할께.」

「잠깐. 너 무슨 일 있니?」

「아니야.」

드디어 毛世의 電話 "去來 끊고 싶은가…"

「오랜만에 전화 걸었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끊을 거니?」

「미안해.」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두봉은 소파로 돌아가 앉아있었다.

문자가 한숨을 돌리며 오빠쪽에게 무슨 말인가 하려는데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렸다.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어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때르릉

때르릉

그녀는 오빠를 돌아보고나서 조심스럽게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아무 말이 없다. 그러나 그녀는 직감적으로 상대가 남자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보세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상대방을 불렀다.

「박문자여사.」

모세였다. 그녀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오빠를 바라보았다. 두봉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박문자여사.」

야유하는 듯한 조용한 목소리가 귀를 후비고 들어왔다.

「말하세요.」

「왜 지시대로 하지 않았지?」

「……」

그녀는 악이라도 쓰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다.

「왜 입금시키지 않았느냐고? 내 말 들리지 않아?」

「사정이 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듣기 싫어. 이유를 듣자는 게 아니야. 나하고 이만 거래를 끊자 이건가?」

朴男 그림

생활영어 ⑤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DROP ME A LINE.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미국인 동료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면서 I'll drop you a line from time to time.라고 말했다. from time to time(가끔)이라는 부분은 알아들었는데 drop a line이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한 교포가 평소에 함께 등산을 했던 처지인지라 line을 rope(등산용 밧줄)로 착각을 하고, 가끔 등산을 가자는 말로 이해하고는 「좋아요. 우리 가끔 등산갑시다」 O.K. Let's go mountain climbing from time to time.이라고 대답을 해서 상대방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drop a line이란 To write and mail a note or letter.(누구에게 몇줄 써 보내다) 다시 말해서 「몇줄 간단히 적어 보내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생활영어 표현이다.

「서울에 도착하면 몇줄 간단히 적어 보내게」를 영어로옮겨보면 Drop me a line when you get to Seoul. 하면 될것이고,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몇자 적어 보내라」고 할때는 Drop me a line as soon as you arrive in the United States. 이와같이 하면된다.

멀리 떠나간 아들에게서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자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He could at least drop me a line to let me know he's O.K.라고 했다면 이말은 「적어도 잘 있다는 소식만이라도 몇줄 적어 보내줄수 있겠는가」라는 뜻이다.

A: Drop me a line when you get to New York.

B: What do you mean?

A: You know, send me a postcard.

B: Oh, you mean write to you.

A: What did you think I meant?

B: I had no idea what you meant.

A: 뉴―욕에 도착하거든 몇자 간단히 적어 보내십시오

B: 무슨 말씀이시죠?

A: 엽서를 띄우라는 거지요.

B: 아, 소식을 알려 달라는 말씀이시군요.

A: 뭐라고 생각하셨는데요?

B: 무슨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몰랐읍니다.

★〈발음〉postcard: t가 파열되지 않고 「포우스카드」로 발음됨.

YMCA가을 프로그램안내(1)

토론토한글학교 영어학교	9월25(토)개학 오전10반~오후1시	777 BLOOR ST. W.
웨스톤한글학교	9월22일(토)개학	매주수요일 오후4시반~7시
영어교실	10월 4일(월)개학	DAYSTROM국민학교
토요학교 (미술·한국무용·태권도·바이올린 피아노·기타—)	9월25(토)개학 오후2시~5시반	WEST END YMCA 931 COLLEGE ST.
알공킨 단풍 관광	10월9일(토)오전8시~오후8시	회비 $20 알파 와이즈 멘즈클럽경로후원
시편강좌	9월12일(일)~10월3일(일)	강사 : 조남유목사, 오전7시~8시반
발레이·져즈 (발표회 6월)	6시(6~9세) 7시(10~13세) 8시(14세이상·성인)	PAT STEWART LOTT 회비 $30 매주 화요일 9월28일(화)등록
청소년합창단	목요일 오후6시~8시	지휘 : 안병원

빅포드고교(크리스티써브웨이옆)

문의는 536－1166 미스터 김
931 COLLEGE ST.
KOREAN YMCA 총무 김 창열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전 사형수!

이인수 집사의 산증언

←강사 약력→

- ○전 육사 육군대학및 국방대학원 교수
- ○전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서실장및 특별보좌관
- ○현 새문안교회 집사
- ○평신도 전도단장
- ○새마을 연수원 교수

※출감후 5년간에 600회 집회인도

일 시 : 1982년 9월 9일~12일 (목, 금, 토, 주일) 4일간 (하오7 :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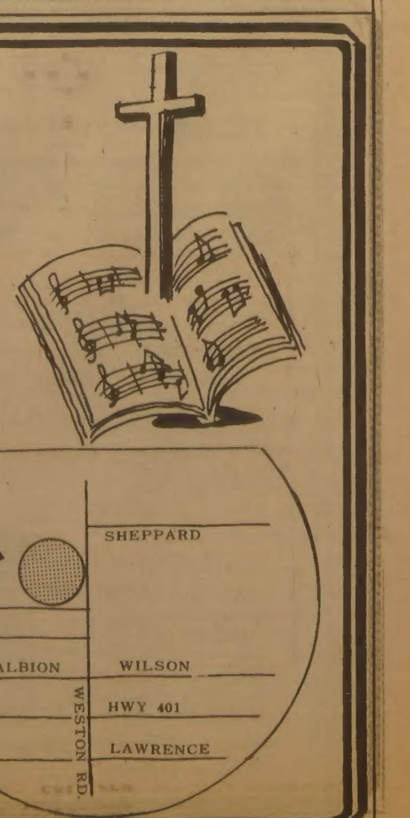
집사수련회 : 9월11일(토) 오전10시

장 소 : 반 석 교 회

2840 Weston Rd., Weston, Ont.

연락처 : 746－5010

반석교회 당회장 양세주 목사



景氣 꾸준한 회복勢

8월 經濟동향 「指數」 1.4% 큰폭上昇

不動産 침체벗어… 輸出은 계속不振

국내경기는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계속해서 느린속도의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있으며 모처럼만에 부동산경기도 살아나 일부지역에서는 과열현상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은 여전히 부진해 경기의 회복속도를 더디게 해주고있다.

8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8월중 경제동향에의하면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주는 景氣指數(同行지표)가 월중1·4%나되는 큰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지난해9월이래 가장높은 수준인 1백47·6을 기록, 현재경기가 회복되고있다는것을 반영했다. 2~3개월후의 경기동향을 예고해주는 景氣指數(先行지표)도 월중0·6%증가하면서 연속 5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내 경기의 꾸준한회복을 예고했으며 韓銀에서 작성하는 景氣豫告指標(WI)도 4개월만에 0·8을 벗어나 0·1포인트상승, 0·9를 기록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수출부진으로 경기의 전반적인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8월중 경제동향에서 특이한것은 오랫동안 침체되고있던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있다는 점인데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1백43만6천㎡(7월중)로 지난해 같은시기에 비해 84·2%늘었고 주택건설착공호수도 올들어 7월말까지 9만2천6백3호로 작년 같은기간에비해 31·6%증가했다. 경제기획원은①부동산은 전반적으로 거래및가격이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있으나②서울開浦洞등 일부지역에서 일어난 과열현상이 다른지역으로까지 파급될 우려가있고③전세가격이올라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질것으로 우려된다고밝혔다. 이날발표된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같다.

▲산업생산=생산은 4월이후 증가세가 그대로 지속돼 7월에도 1·2%증가했고 재고도 0·4%감소로 계속 줄고있으나 출하는 2·1%감소로 약간 둔화。

▲설비투자=해외수주의대폭증가(83·6%)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16·4%가 늘었고 설비기계류수입도 32·8%증가했으며 은행총대출금중 시설자금대출의 비율도 21·4%로 전달보다늘어 설비투자는 느는 추세。

▲고용=7월중 실업률은 4·0%로 6월의 3·8%보다 약간늘었으나 이는 계절적요인 때문이며 대체로 보합상태。

▲통화=총통화는8월중30·4%로 전월의 32·9%에비해 증가율이 둔화됐으며 통화도 예금제도개편에따른 증가요인을 빼고나면 17·6%의 증가율로 안정된수준。

▲시중자금사정=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8월하반기들어 부도율이 약간상승、상반월에는 0·07%로증가。

▲국제수지=경상수지 적자가 지난해 같은시기의 4억9천3백만 달러보다 3분의 1이하로 줄어든 1억1천5백만달러로 개선됐다。이에따라 외환보유고도 61억1천8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억달러 증가했다。

國會, 내일五輪特委

국회는 10일 하오 李源京체육부장관과 올림픽 支援위원회 관계자들을 출석시킨가운데 올림픽特別委를 열고88올림픽 종합대책을 보고받은뒤 정책질의를 벌인다。

벨기에 通商長官에 全대통령、勳章수여

全斗煥 대통령은 8일상오 청와대에서 벨기에의 안드레·켐피네르 通商장관을 접견하고 修交훈장光化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金東輝상공、朴贊兢 총무처장관과 韓·벨기에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두벽송 벨기에측 위원장、윈터벡 駐韓벨기에대사가 배석했다。

"滯賃 추석前 支拂토록" 盧泰愚내무 指示

盧泰愚내무장관은 8일 추석을 앞두고 노임이 체불된 업체에 대해 추석전에 정산될수 있도록 기관장이 조정·독려하고 행정기관에서 지불해야할 노임과 자재대금은 다른 경비에 우선 지급할 것을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盧장관은 또 추석 성수품목의 수급과 가격을 수시로 점검, 가격안정대책을 세우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점매석·계량위반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기동단속을 펴도록 지시했다。

盧장관은 이와함께 선물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추진하되 양로원·고아원등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웃 돕기운동」을 전개토록 지시했다。

◇盧泰愚내무

自爆시한 48시간延長

스위스 波대사관占據범인 3명석방… 4명抑留

【베른·바르샤바聯合=聯】 베른의 스위스駐在 폴란드대사관을 강제점거하고 대사관직원 9명등 12명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고있는 자칭 『폴란드 애국혁명군』특공대 4명은 8일 상오 1시20분(현지시간) 여자3명을 또다시 석방,모두 8명을 풀어주는 한편 나머지 남자 4명을 붙잡아 둔채 당초 8일상오 10시로 했던 『自爆시한』을 48시간 더 연장했다。

스위스정부는 7일 이들폴란드반정부 특공대와 직접협상을 개시했으며 최악의 경우 4명의 인질을 구출하기위한 스위스경찰의 대사관진입을 승인했다。

한편 폴란드군사정부도 같은날 이사건을 다루기위한특별위기대책반을 구성하고 스위스당국과 협력、인질 구출을 도울 폴란드의 한특수그룹」이 파견될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폴란드에 요청했다。

자칭 「비소키大領」등 4명인것으로 전해진 폴란드무장특공대는▲폴란드계엄령해제▲모든 정치범및 반체제인사석방▲폴란드군사정권에의한 국민탄압중지등을 서면으로 재차 요구하면서 오는10일상오10시 (한국시간 10일하오5시) 까지 이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인질과 함께 대사관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池蓮泰대사

◇金炯根대사

◇李龍勳대사

◇金在勳대사

大使6명 異動

이탈리아 池蓮泰
콜롬비아 李龍勳
코스타리카 金在勳
오스트리아 金炯根

정부는 8일 在外公館長 4명을 포함, 6명의 大使級人事異動을 단행했다。

◇池駐이탈리아大使약력=▲全南高興출신·54세 ▲高大法大卒 ▲駐휴스턴총영사 ▲儀典室長▲駐콜롬비아대사

◇金駐오스트리아大使=▲仁川출신·51세 ▲國學大卒▲駐泰國공사▲駐휴스턴총영사▲駐버마대사▲외무부儀典長

◇李駐콜롬비아대사=▲京畿華城출신·52세 ▲서울工大卒·美뉴욕大행정학석사 ▲駐뱅쿠버총영사▲駐코스타리카公使·大使

◇金駐코스타리카大使=▲慶南晋州출신·50세 ▲外大스페인어科卒·멕시코국립대학원수료 ▲駐브라질공사 ▲駐니카라과대사

社會漫評

文敎行政路

地平線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전의 일인가 싶다。 이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원로작가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 무렵만 해도 화제의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하여 그야말로 낙양의 지가를 올리고 있던 초로의 중견작가 한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그는 단아한 몸가짐에 말이 적은 쪽이었다。▼우리 나라를 찾은 이유인즉 고려시대 몽고의 난을 일본의 입장이 아닌 한국의 처지에서 소설로 다루어 보고자 이서 현지취재를 위해서였던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른 봄 설녹은 진창길을 고생고생 하면서 자동차 편으로 강화도를 먼저 찾았던 것이다。▼문화부의 기자이던 地平線子가 우리나라를 처음 찾은 그의 길잡이도 하고 또 고려군의 항몽의 역사도 들려 주겠다는 심산으로 동행했었으나 도선을 기다리며 강화도 대안에선 그는 마치 고향에라도 찾아든듯 멀리 손가락질을하면서 저기가 외성이고 또 저기는 내성이며 하고 되려 거침이 없다。▼그때만 해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인의 나들이는 없을때였다。 그는 이제 협려 없어진 반도호텔에 호젓이 머물며 고려수군의 자취를 찾아 마산과 제주도를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가게 되었을 무렵,지나치던 길가 책방머리에서 그가 쓴 소설책을 발견하게 됐다。▼그는 한자로된 스스로의 소설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며 한국에서도 내 소설이 읽히고 있느냐고 묻는다。 물을 나위도 없이 해적판으로 간행된 자신의 소설책을 들고 책의 꾸밈새가 아름답고 정성스러우니 고마우며 자기작품이 한국에서까지 읽히고 있어 기쁘다고 했다。▼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날의 당혹과 부끄러움이 어제 같은데 그 이른바 해적판 소설은 여전히 우리 서점에 나돌고 있다。그때와 달라진것이 있다면 장정이 더 세련되었고 또 작품의 종류가 보다 풍성해 졌다는 사실이다。『불확인 서점가에서 일본소설이 계속 베스트셀러』라는 한국일보 8일자 11면의 머리기사에 절로 착잡함이 따른다。▼한쪽에서는 일본교과서의 왜곡을 비분강개하는 소리가 높고 다른 한편으로는 겨레의 이름으로 독립기념관을 이룩하고자 하는 열의가 충천하는데도 또 다른 구석에선 20년전 그때나 마찬가지로,아니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저하가 가속되면서 일본 읽거리의 해적판이 우리문화 풍토를 어지럽히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 안될듯 하다。

한국 최초의 洋畵 돌아온다

83년 만에…國立 현대美術館서 展示

舊韓末 韓美修好條約이 체결된후 미국인 화가가 그렸던 우리나라 최초의 洋畵인 高宗의 御眞과 景福宮풍경,그리고 閔商鎬초상화등이 기적적으로 작가의 후손에 의해 미국에서 보관되다가 이달30일 한국으로 잠시 돌아오게됐다。 오는30일부터 國立現代美術館에서 1년동안 전시될 이작품은 1899년당시 극동을 여행중이던 미국인화가 허버트·보스가 주한미공사관의 안내로 그렸던 높이2m크기의 高宗御眞과 外部交涉局長 閔商鎬초상화 그리고 景福宮遠景등 3점으로 그동안 미국코네티컷주의 하트포트에 거주하는 보스3세에의해 보관돼오다가 우리정부의교섭으로 83년만에 한국에서 전시하게 된것이다。

高宗 御眞·景福宮 풍경·閔商鎬 초상화

畵家 허버트·보스의작품、후손이 보관

◇우리나라 최초의 洋畵인 高宗御眞。1899년 미국인 화가 허버트·보스가 두폭을 그렸는데 한폭은 德壽宮에 보관중 타버렸고 미국으로 가져간 한폭이 남아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된다。

그후 高宗의 御眞은 德壽宮에 보관됐다가 1904년화재로 불타 없어지고 문헌상으로만 전하다가 최근 그소재가 파악되어 문공부와김홍남씨(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동양관연구원)등의 교섭으로 1년동안 한국에서 대여전시를 갖게 된것이다。

19세기후반에 한국에 와있던 마르텔씨(프랑스語學校長)가 쓴『외국인이 본 朝鮮의 外交秘話』에의하면『高宗의 御眞을 네덜란드系 美國人 보스가 그려 德壽宮에 걸어뒀으나 1904년 화재로 불타버렸다』고 기록、한국최초의 洋畵로된 초상화는 영영 볼수없는것으로 전해져왔었다。

허버트·보스씨는 185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화가로서 세계각국을 돌아다니면서 異國의 풍물과 인물을 주로 그렸었다。

19세기말 淸에 들러 西太后、李鴻章등의 초상화를 그리기도 했던 보스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인 朝鮮을방문、주한미공사관의 알선으로 高宗의 御眞을 그리게된것으로 선명한 색깔에 보존상태가좋은편이다。

萬元이라는 巨金을주고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허락한 高宗은 색채가 있고 마치 사진처럼 리얼한 이 작품이 전통적인 평면그림과 달라서 몹시 만족하고 선뜻 萬元이라는 畵料를 서슴지않고 주었다。 高宗의 御眞은 等身大보다 큰 높이2m의크기에 곤룡포를 입은 高宗의 단아하게서있는모습을 그대로 담고있다。 또한 보스는 당시外部交涉局長인 閔商鎬의 초상화와 景福宮遠景을그려 미국으로 가져갔는데 이역시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보관돼왔었다。

보스의 인물화의 사실적인 역량이 발휘된 두초상화와80년전 서울의 風物을담은 풍경화는 예술적인 회화작품이라는 의의와 함께 한국에서 처음 그려진 油畵라는 洋畵史의 여명기록도 담고있다 (한국의 서양화는 그로부터 15년후 高羲東에 의해 시도됨)。

◇구한말 외부교섭국장 閔商鎬의 초상화。

이들 작품이 한국에서 전시되게된 배경은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동양관 연구원으로있는 김홍남씨(女·예일大출신)가 친지로부터 보스 3세가 동양을담은 작품전시를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확인한결과 이들세 작품을 찾아 국내전시를 위한끈질긴 교섭을 벌였고 李鎭烈씨는 문공부에 이작품을 韓美修交1백주년 기념제작영화에 담을것을종용하고 국내전시를 건의, 결국 극적으로 한국에 돌아온것이다。

李鎭烈씨는 이들작품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을 담은油畵이기때문에 본격적인近世美術史의 한기록이며 80년전의 서울의 풍정을 담은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있다고 풀이했다。【聯】

이들 작품은 허버트·보스가 高宗으로부터 1만元의畵料를 받고 그린것인데 화가보스는 그외에도 高宗의 御眞을 한폭 더 그리게 해주도록 간청、결국 두폭을 그려 한폭은 高宗에게 또 한폭은 본인이 미국으로가져갔던것。 당시 皇城新聞과 承政院日記實錄은 이사실을 기록하고 실물과 똑같은 이 그림에 대한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景福宮의원경。 이들 3점의 양화는 보존상태가좋고 색깔도 선명하다。

雪嶽圈 순회버스 運行

觀光用 10월부터 雪嶽洞~淸簡亭

【束草】束草를 중심으로 雪嶽圈 4개 시군을 순회 운행하는 순회관광노선버스가 오는10월부터 운행된다。

東草 여객(대표 崔在吉)은 자본금 1억4천만원으로 관광버스 6대를 들여와 오는 10월1일부터 東草市 雪嶽洞을 발점으로 洛山寺~五色里~寒溪嶺~將臺~龍垈里~陳富嶺~杆城~淸澗亭코스로 운행키로 하고 강원도에 허가를 신청했다。

18~20일蘭溪예술제 학생國樂경연 계획

【永同】 제15회 蘭溪예술제가 한국예총 永同郡支部주최로 오는 18~20일까지 3일간 深川面 高塘里 蘭溪祠에서 개최된다。

蘭溪 朴堧선생(1378~1458년)의 업적과 얼을 기리기위해 열리는 이번 예술제에는 난계사참배、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등 각종행사가 열리게된다。

深川面高塘里에서 태어난 난계 朴堧선생은 조선조世宗때 鄕樂과 唐樂·雅樂의 율조를 연구、樂器譜法과 樂書를 만들어 우리나라 宗廟樂을 처음으로 정통적인 아악으로 확립했는데 고구려의 王山岳과 신라의 于勒과함께 우리나라 3대악성의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다。【聯】

日 文部省에 화염병

「교과서 改惡반대」傳單… 自民黨舍에도

【東京=聯】 일본문부성의역사교과서 왜곡비판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가운데 7일저녁 東京시내의 문부성과자민당본부에 화염병 투척사건이 발생했다。

일본경찰에의하면 이날저녁 7시30분께 문부성정문앞에 2개의 화염병이 던져진후 곧이어 1㎞정도 떨어진 자민당본부 정문앞에도 2개의 화염병이 던져졌다。

화염병과함께 두 현장에는 「침략전쟁을 찬미하는 문부성을 규탄한다」「교과서개악반대」「과거의 일제침략 응징」이라는등의 구호가 적힌 전단이 뿌려졌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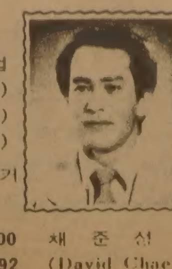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노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 8900 채 준 석
(R) (416)633 7892 (David Chae)

초청합니다

금년 골프씨즌의 매듭을 짓는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여 본 클럽에서는 제2회 친선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하오니 많이 참가 하시어 행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장 소 : RICHMOND HILL GOLF CLUB (884-8171)
일 시 : 1982년 9월18일(토)오전11시
참가비 : $35 (디너포함및 본클럽 기념품 증정)
시 상 : GROSS 및 NET A, B, C조
연락처 : 모나미트로피 ; 이기훈(298-3584)

※다량의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음.

토론토 한인 라이온즈클럽
회장 서준경

주말학교 교사를 위한
"한국어 과정"안내

토론토대학교 SCHOOL OF CONTINUING STUDIES에서 교사를 위한 한국어 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기 간 : 1982년10월4일~1983년3월7일
(1982년12월7일~1983년1월2일방학)
횟 수 : 20회 강의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장 소 : 158 ST. GEORGE ST. TORONTO, ONT.
등록금 : $160.00

주말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이나, 학생지도에 관심이 깊으신 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973-3299 (Dr. Beck) 로 전화해 주시면 모든 편의를 도모해 드릴 것입니다.

「不況·處方」의 攻防戰

두달앞둔 美의회 中間선거 展望

輿論은 民主黨이 약간우세

레이건행정부의 전반부 치적을 심판하는 의회중간선거 열풍이 요즘 부쩍 기세를 돋우고 있다.

의원들은 오는11월2일 치를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회기(9월7일~10월8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위해 부산하게뛰는 모습이 눈에띈다.

현재 의석分布를보면 상원은 공화당 54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1석으로 돼있고 하원은 민주당 2백44석, 공화당 1백91석으로 돼있다.

이 의석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며 이런 새로운 의회구성이 레이건대통령의 잔여 2년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에 있다.

레이건대통령의對의회전략은 당선직후보다는 많이 변질됐다고 보는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국방비를 대폭 늘인 83년 예산안, 균형예산을위한 헌법수정안의 통과등을 두고 아직도 의회와의 관계는 카터시절보다는 월등하다고 모두들 평가하고있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의선거공약도 레이건에대한 공약, 특히 국내적으로 실업, 불경기등 경제문제, 국제적으로 對유럽관계, 레바논사태등 외교문제에 거의 집중하고있는것 같다. 민주당은 최근의 불황을 「레이건 불경기」라고 하며 공화당을 공격중이고 사실 국민들의 관심 또한 경제문제에 더 기울어져 있는 형편이다.

미국대통령에게는 소위「중반기슬럼프」란는것이 있다. 여론조사가들이 만들어 낸것인데 루스벨트이래 역대대통령이 그의 임기중간 즉 중간선거철에 어김없이 인기가떨어졌다는것이다.

어쨌든 레이건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결국 문제는 이슬럼프의 정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11월 선거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 같다.

레이건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을 선거에 영향을줄 몇가지 문제들을 가지고있다. 물론 그으뜸이 경제문제다. 불황, 인플레, 高금리 이에 따른 실업등은 좀체로 다른 문제의 필적을 불허하고 있는 것같다.

실업률은 지난달 9·5%였던것이 한달도 안돼 9·8%로 뛰어 올랐다.

2차대전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실업률을 보도할때마다 신문·TV들은 덧붙이고 있다.

◇구직안내소앞에 줄지어 서있는 美실업자들. 아침 7시30분에 문을여는 이 안내소 앞에는 새벽 3시30분부터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로 장사진을 이루고있다. 실업문제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이슈로 되어있다.【UPI】

민주당이 이에대한 공략을 집중할 것임이 당연하다. 「레이건불경기」란는 명칭과함께 어느신문은 1천1백만명의 실업자를한사람당 5피트의간격으로 세우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이른다고 실업의 심각성을 그리고 있다.

실업은 강철·자동차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중서부지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며칠전 TV에 소개된 애리조나의 한광산촌의 경우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같다.

銅광산촌인 이곳은도시 하나가 자동차 공업의 부진으로 광산의 문을 닫자 미국내 도시가운데 최고인 무려 70%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삭[illegible] 거의 철시돼있는황량한 [illegible]국의 한장면같은것을 TV는 보여주고있다.

失業등 經濟에 촛점

「레이건人氣」도 주요變數

그럼 이런문제에대한 레이건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소위 레이거노믹스 1년은 기록적인 실업을 나았고 앞으로 3년간 1천억달러의세금증가는 세금삭감이란는 당초 레이건의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일뿐아니라 그렇지않아도 휘청거리는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공격을 집중할 것이다. 어떻게보면 경제이슈는 공화당과 민주당사이에서 닭과 달걀같은 뉘앙스를 가지고있다.

다만 불황 그자체보다 얼마나 설득력있는 대처방안을 내놓느냐에 더큰 비중이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경제문제가 그렇다면 또다른 레이건공화당의 문제는무엇인가? 모두가 외교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동, 소련, 중공 그리고 최근에 시끄러워진 유럽우방과의 문제이다. 레이건취임 1년반이 지나자 흘러나온말이 레이건은 외교에는 탁월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레이건 외교에서 가장뚜렷한것이 對소련 강경책이다. 이것은 레이건의당선에도 커다란 영향을주었지만 아직도 견지될만큼 국내적인 은근한 지지가있는것으로되었다. 물론 국방비증액, 소련과의 핵금지협상중단등은 민주당의 공격대상이 될것이다.

대만에대한 무기판매의 계속으로인한 중공과의 문제가 국내에서 비판을일으키고 있지만 이를당장 후퇴시키지않고있고 가스관기술장비 금수조치로인한 유럽우방과의 시비도 크게는 이런테두리안에 있다고 보아야할것이다.

다만 유럽국가들의 경제적이익과 관련되어있고 미국이 그정책결정 과정에서 너무 고답적으로 행동한것이 유럽나라들의 비위를 건들여놓고 있는것이다. 유럽 문제와 함께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對중동, 레바논사태, 이스라엘문제가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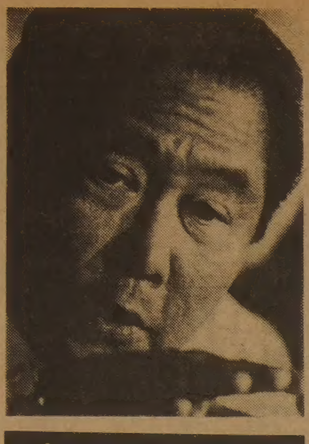
그리고 대통령 피선시보다 여러측면에서 인기가 떨어져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오는 중간선거에서 어떤결과로 나타날것인가. 많은 사람들이민주당의 약간의 우세를 점치고있다.

특히 4백35석 전구를 새로뽑는 하원에서 현재 공화1백91, 민주2백44의 판도에서 15~20석 민주당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것은 거의가 장기적불황, 기록적인실업, 저성장등의 경제적문제 때문일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갤럽여론조사는 하원선거에 있어 여론의선호는 민주, 공화가 53대38로 민주당의우세를 예상하고있다.

예일의 에드워드·터프트의 예측방법에 의하면 하원에서 민주당은 40석을 더 얻는 것으로 되어있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病色짙은 마르코스

11월중 執行委에 權力이양

17年장기집권 종막 告할듯

마르코스 필리핀대통령은 지난6일 필리핀전국에 방영된 TV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권력이양문제를 비롯 미국의 對아시아동맹국 방위공약등에 대한 견해를 폭넓게 개진했다.

그러나 이TV회견에서 더욱 크게 클로스·업된것은 病色이 완연한 그의 얼굴이었다.

그 때문에 1년전 구성된 집행위원회에 통치권력을 잠정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라는 마르코스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의 건강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쉽게 짐작케했다.

마르코스대통령은정권을넘겨줄수있도록 6개월간의 휴식기간을 허용해줄것을 집권新社會運動黨에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회견후의 간담회에서 이를 1개월로 정정, 오는 10월이나 11월중에 권력을이양하겠다고 말해 그의 17년 장기집권의 終幕이 임박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뒷받침하려는 듯이 필리핀의회는 7일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한 법률안을 승인했다.

정원 15명의 집행위원회는 현재 대통령부인 이멜다여사를 포함, 10명으로 구성돼있는데 마르코스대통령은 위원의 수를 늘리겠으나 군인을 포함시키지는 않겠다고말해 군사집권 가능성을배제했다.【乾】

메아리

金兄

외국인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알리앙스·프랑세즈의 한 프랑스 여교사한테서 들은 이야기다.

한번은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므슈, 므슈!』하고 부르는 남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므슈」는 영어의 「미스터」와 같은것이지만 남자를 부를때 「미스터」와는 달리 뒤에 성을 붙이지 않고 그냥으로도 쓰인다. 여선생으로서는 당연히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지만 하도 다급한 목소리라 누구를 찾나 하고 뒤돌아 보니 그 남학생은 바로 자기를 향해 좇아오고 있었다.

여선생은 학생한테 왜 자기를「므슈」라고 부르냐고 물었다. 대답이『선생님이 교수는 모두 남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읍니까?』였다. 프랑스어에는 명사마다 남성아니면 여성의 性이있다. 직업을 가리키는 명사는 남자일때와 여자일때에따라 語尾가 조금 달라져 각각의 말이 있는것이 보통인데 간혹 남자건 여자건 달라지지않는 말이있다. 그중의 하나가 「교수」(프로페쇠르)라는 말이다. 이때 이 낱말의 性은 무조건 남성이 된다. 아까 그학생은 선생이 교실에선 교수는 항상 남성이라고 했으니까 여선생에게도 남성을 부르는 호칭을 써서 『므슈, 므슈…』라고 목청크게 부른것이다. 말의 性과 사람의 性을 혼동한데서 생긴 笑劇이다.

이것은 閑話지만, 사람을 부른다는 것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울 때가 많다.

영어나 프랑스어나 상대방을 호칭할때 남자는 무조건 「미스터」와 「므슈」, 여자는 미혼·기혼에 따라「미스」「미세스」, 「마드므와젤」「마담」으로 간단히 구별되어 있다. 영어에선 굳이 여성의 경우만 미혼·기혼을 따질것이뭐냐고해서 「미즈」란 新語까지 생긴지 오래지만, 프랑스에서는 연전의 한여론조사결과 여성의 48%가 「마드므와젤」이라는 말을 전혀쓰지말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프랑스에서는 상대방여성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분간하기 어려울때는 그냥「마담」으로 불러서 실례가 되지 않는다.

호칭이 단 세가지뿐인 이런 나라들에서도 그나마도 까다롭다고 남자 한가지 여자 한가지로 통일하자는것이 大勢다.

우리나라의 호칭이 어지럽다는 것은 조금도 새삼스러운 발견이 물론 못된다. 그러나 호칭의 혼선으로 곤혹을 당할때마다 문득 문득 왜 시원한 軌範하나가 없나 싶어진다. 그냥 불편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不和와 시비가 이 호칭에서 생기는 예를 얼마든지 본다.

얼마전 어느 자리에서 金兄이니 李兄이니 하고 부를때 어떤 사이까지가 兄이냐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저마다 各說인채 正答을 가진 사람이 좌중에는없었다.

金聖佑
<編輯委員>

「兄」은 唐代의 문장가 韓愈의 「與孟尙書書」에도 「吾兄」이라고 상대방을 부르는것이 나오는것을 보면 中國에서 퍽 오래된 호칭인것 같다. 의문이 생긴 김에 이튿날 한글학회를 찾아가보았다. 유권해석을 할 마땅한 기관이 달리 생각나지 않아서였다.

한글학회의 柳濟漢선생은 兄은 친구사이의 호칭이요 예부터 10세 사이는 벗을 해왔으니 위로 10세, 아래로 10세까지는 金兄, 李兄하고 부를수 있다고 대답했다. 나중에 한글학자 韓甲洙선생한테 물었더니 위로는 10세까지되나 아래로는 얼마든지 내려가도 상관없다는 의견이었다. 10세사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친한사이일고 아무에게나 金兄, 李兄 할수 없는것은 물론이다.

우리 호칭의 까다로움이 어디 兄한가지 뿐이겠는가. 그런데도 한글학회에 가서 들고 안타까와진것은 이렇게 많은 불편을 주는 호칭문제가 한번도 학자들사이에 논의된적이 없고 이 방면에 대해 조사연구를 한 글이 한편도 발표되지않았다는 것이다.

한글학회에서는 10여년전부터 직원들끼리 남자는 兄대신 「도령」으로 여자는 嬢대신 「아씨」로 부르기 시작해왔는데 지금 金도령, 李도령은 저절로 불려지지않고 있으나 여직원들은 전화를 받으면서도 「金아씨입니다」「李아씨입니다」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고 한다.

蜜月휴가 1週연장

★中共, 晩婚커플 우대키로

北京시는 엄격한 산아제한시책에 따라 늦게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앞으로 밀월휴가를 더 줄것이라고.

◇무더위에 지친 곰　로스앤젤레스동물원의회색곰 2마리가 찌는듯한 불볕더위를 견디다 못해 입을 크게 벌리고 마주보고있다。
【로스앤젤레스AP航空便=聯合】

中共 신화사통신은 최근北京당국이 남녀 각각25세와 23세를 넘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22일간의 휴가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현재의 결혼휴가는 15일.

오는 11월부터 실시될 이 조치는 또 아이를 하나만 갖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가 14세될때까지 매월 5元(2.5달러)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中共의 법정결혼연령은 남녀 각 22세·20세로 돼 있지만 강력한 인구억제시책에 따라 中共에서는 만혼이 장려되고있다.【北京=聯合】

海外토픽

飮酒운전·麻藥판별

★비디오장치 머잖아 開發

미국의 교통경찰관들은 멀지않은 장래에 운전자들의음주정도를 알아내기위해 최근 널리 유행되고있는 전자오락게임을 시키게될지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 음주및 마약문제를 다루었던미국상원의 한 소위원회에서퍼듀대학의 약학교수인 로저·미클박사가 증언을 통해 운전자의 음주량이나 마약중독증세를 알아내기위한 방법으로 비디오게임이 훌륭하게이용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한데서 나오게된것.

미클교수는 『단속반원이가두에서 운전자들을 테스트할수있는 간단한 비디오장치만 개발되면 이러한 방법은 가능할것』이라고 조언했다.【웨스트라페예트(美인디애나주)=UPI】

새KKK동맹 결성

★美·加등지8개파벌규합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우며 유태인및 흑인을 공격해온 악명높은 KKK단이 최근 미국및 캐나다의 8개파벌을 규합, 새로운 KKK동맹을 결성했다.

지난 수년간 그들의 활동무대중의 한 곳이었던 조지아州의 한 비밀장소에서 회의를 가진후 새로 결성된 그이동맹은 그들의 두목격인 로랜드·위자드(대마법사)로 앨라배마州의 「KKK전국騎士團」을 이끌고있는 돈·블랙(28)을 선출했다.【스톤마운틴(美조지아州)=聯合】

한글세대作家 尹興吉의 「歪曲列島」縱橫記

내가 처음본 日本 <5>

살아있는 良心도…

「歪曲反對 2천만 서명운동」펴는 「이노우에氏」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전화가 걸려온다。대문간에서 초산이 든 병을 집어던진다. 봉투속에서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편지가 집으로 배달된다.

80만부를 돌파, 여전히 베스트·셀러자리를 고수하고있는 「吉里吉里人」의 작가 이노우에·히사시(井上)씨가 요즘 겪고있는 이야기다.

그는 작년에 지식인들을 규합, 「교과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이란 단체를 만들었다. 이 단체에서 교과서왜곡을 반대하는「2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그의 신변에 음양으로 위협이 가해지기 시작한것은 작가이넌 한 인간으로서 그가 주도하는 良心운동과 때를 같이한다. 이노우에부부의 초대를 받아 나는 東京교외 이치가와(市川)市에있는 그의 저택에서 환대를 받았다.

몸이 몇개라도 모자랄정도로 바쁜인기작가답게 그는 넓은 정원이 달린 큰집에서 살고있었다.

두채의 건물을 잇대 꾸민 그의 개인도서관에는 빌디딜틈도 없이 책들이 꽉 들어차있고 한국관계서적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매년도서자료구입비로 2천만엔이상을 지출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벌린입을 다물지못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그가 부러웠다. 내가 부러워한것은 호화로운외형보다 그의 내면이었다.

온갖 위협에도 굴하지않고 자신의 주장을 의연히 밀고 나가는 그 신념과 용기에 나는 감명을받았다. 남편 못지않은 활동가인 미모의 부인도 동요하는 기색이 조금도없이 상량하기만했다.

이노우에씨는 한국의 헌법에 할 기회가 있었다. 헌법전문에 3·1정신이 한국의 건국이념의 하나로 명시돼있음을 보고 그는 침략이 진출로, 독립운동이 폭동으로둔갑되는 따위의 왜곡이 저질러져서는 않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더 나아가 그는 일본인이 쓰는 終戰이란 말도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스로 일으킨 전쟁에서 졌기때문에 敗戰으로 표현해야 옳은 것이다.

그는 일본이 이성을 되찾아 진실의 편에서서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그럴게하는것이 이웃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 일본자신을 위해 다행스럽고 유익한 길임을 굳게 믿고있다.

음지못한 일본인에 가려서 이노우에씨같은 진실한 일본인이 잊혀지는 경우가 더러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2천만인 서명운동에 가담한 수많은 이노우에씨들의 존재를 간과하거나 그들을 일본하고 따로 떼어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일본에서 그들의 존재가 절대다수의 세력으로 등장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로 밀리기를 나는 바란다.

그렇게 되는날 한국과 일본은 진정한 선린관계로 접어들수 있을 것이다.

그림 鄭駿溶

30일 오후에는 유명한 서점가인 간다(神田)의 대형서점 하나인 三省堂에서「에미」의 사인판매를 가졌다. 한시간 남짓한 동안에 정확히 1백7권의 책에다 상대방의 이름과 내이름을 휘갈기느라고 눈코뜰새 없었다. 한국부인회 東京지부장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일본에서 이런 행사는 난생처음이라며 기뻐하는 그들을 보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한편, 앞으로의 내 작업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다.

일본에서 출판되는 내책들이 재일동포한테 다소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면 나로서는 그이상 다행일수가 없다.

사인회가 끝나기무섭게 택시를 잡아타고 東京에서 한시간반 거리인 하찌오지(八王子)市로 달렸다. 근래에 새로 장만한 아담한 양옥에서 나까가미 부부를 다시 만났다. 나까가미가 서울 仁旺山의 신령한 바위앞에 빌어 얻었다는 개구장이 외아들 스즈시(涼)가 고향 할머니집에 가고 없어 서운했다.

나까가미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요미우리신문의 시라이시(白石)기자하고 인터뷰를 끝낼무렵 손님들이 우르르 밀어닥쳤다. 일본문단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젊은 평론가인 가라다니(柄谷)부부, 인기작가인 마쓰메(勝目)부부, 시인 요시마쓰(吉增)부부, 작가 스즈끼(鈴木孝一), 다사이·오사무의 딸이자 여류작가인 쓰시마(津島佑子)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다같이 20년전에 결성된 문학동인「文藝首都」의 회원들로서 이제는 어엿이 존재를 저마다 내세우는 일본문단의 중견들이다. 전혀 낯설게 느끼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새벽녘까지 그들과 흉허물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한국인이자 한국문학, 그속의 미세한 부분인 내작품에 관해서 그들이 보여준 관심은 아주 진지하고도 다채로운 것이었다.

가라다니하고 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앞으로 내가 여행할 北海道와 近畿지방에 관해서나에게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문화에 대한 그의 관심은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제자를 한국에 보내는가 하면 한반도의 영향없이는 오늘날 일본의 기왓장하나도 있을수 없다고 단언할 정도였다.

인기작가인 마쓰메씨의 고민을들었다.

그는 1년에 1억5천만엔의 인세수입을 올린다. 그중에서 1억1천만엔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4천만엔만 자기가 차지한다.

주체못하는 돈과 세금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는 남편을 보고 프러듀서인 부인은 제발 돈좀 그만 벌라고 강짜가 심하지만 가만있어도 꾸역꾸역 들어오는 돈은 그로서도 막아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 돈을 내버리기위한 궁여지책으로 하는수없이 최근에 영화사를 차리는 비운에 봉착하고 말았다. 그것도 팔리는 영화를 만들면 또 돈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게 되니까 될수록 안팔리는 영화, 그러면서도 좋은 영화를 만들려고 기를쓰는 중이다.

나까가미의 한 친구가 그소리에 자기연수입은 마쓰메씨의 1백분의1인 1백50만엔 이라며 뒤로 벌렁 누워버린다. 그러자 누군가가 『그대신 너는 남이 한명도 못갖는 애인을 백명이나 가졌지 않느냐』며 그를 위로한다.

세상에 그런 일도 다있구나 싶을 정도로 해괴하게 들리는 별난고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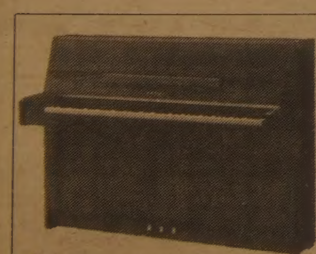
내 소설 「에미」가 안팔리는 영화의 원작으로 마쓰메부부에의해거론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나는 쓰고도 남을 만큼 여유가 많은것이 좋은 작품을 쓰는데 어떤 손익을미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창작행위란 원래 넘치는 여유의 소산인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는 완성심리의 소산인가.

5주년 개업기념 스페샬

★기 간 : 9월1일~9월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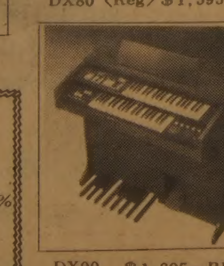
10~30% OFF



CX-4 Walnut (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 (Reg.)

DX300　$3,495-REG

DX80 <Reg> $1,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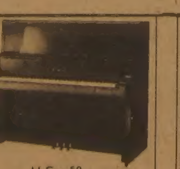


DX90　$1,895-REG

DX100　$2,395-REG
DX200　$2,995-REG

◉새로 도입된 DX 전자올갠 전 모델(10% -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 15%)
◉기타 USED 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KS3F(50 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T7(46 인치)
Reg.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US 50 (52 인치)
Reg. $5,995

◉CE7N open walnut $3,395
Reg.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KL32WG(52 인치)
Reg. $6,1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32 WD.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섭

中共、全方位외교 展開

西方과 공동利益 추구

제3世界와도 友好관계 지속

胡耀邦、12全大會서 보고

【홍콩=聯】中共黨주석 胡耀邦은 동구국가들과 중공간의 관계가 최근 발전돼왔다고 말하고 특히 북괴·루마니아·유고슬라비아등을 중공에게 「우호적 사회주의 국가들」로 지칭했다고 7일 홍콩의 親중공계석간 「新晚報」가 보도했다.

胡耀邦은 현재 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중공당12全大會에서 행한 보고중 외교정책에 언급하면서 「우리들은 북괴·루마니아·유고슬라비아등 우호적 사회주의국가들과 밀접한 협력으로 단결과 우정을 부단하게 공고히 해왔다」고 지적한 것으로 이신문은 전했다.

胡耀邦은 중공이 지난 33년간 「평화공존 5원칙」을 바탕으로 1백25개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회고하고 「우리들은 아시아·아프리카및 중남미의 많은 개도국들과 상호호의와지지로 각 방면에서 협력을 발전시켜왔다」고 강조함으로써 지난7년간 소원했던 제3세계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의사를 밝혔다.

胡耀邦은 그러나 중공이많은 서방국가들과 사회제도가 다르지만 모두가 세계평화라는 공동의 희망을 갖고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도 경제 문화분야에서의 공동이익과 잠재력개발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관계를 유지해야한다고 말해 제3세계와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동시에 중시해 나가겠다는 외교기조를 명백히하면서 동구국가들과도 최근 관계발전이 있었다고 강조함으로써 제3세계 서방세계및 東유럽국가들에 대한 「全方位外交」를 전개해 나갈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勳章받는 하비브特使 레이건美대통령(右)이 7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中東지역에 파견돼 평화중재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필립·하비브 美中東특사(左)에게 국가가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명예의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고있다. 【워싱턴7日AP電=聯】

西獨聯政 붕괴危機

슈미트·겐셔 不和

【본(西獨)=聯】흔들리고 있는 서독연정의 위기는 7일 한스·디트리히·겐셔 외상이 그의 자민당(FDP)을 오는11월안으로 연정에서 탈퇴시킬 계획이라는 보도가 전해짐으로써 한층더 높아지고 있다.

서독의 주간 슈테른誌는 9일자호에서 그같은 겐셔외상의 탈퇴계획을 보도했는데 정계소식통들은 역시 연정을 구성중인 사민당(SPD)의 헬무트·슈미트 수상과 겐셔외상의 불화가 최근 한층더 심화된것으로 보아 이같은 슈테른誌의 보도는 연정붕괴의 도화선이 될 수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外國테러分子로 곤혹

波 人質사태로 본 스위스 近況

레닌도 한때 취리히에 은거

루마니아·헝거리人 根據地로도

터키外交官 피살

○…조용한 나라라는 인상과는 대조적으로 스위스는때때로 외국극렬분자들의 활동본거지나 무대가 되곤한다.

지난20세기초 볼셰비키(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의 다수파)망명당원들은 스위스에머물면서 차르(러시아황제)에 대한 음모를 꾸몄었다.

레닌자신도 제1차세계대전중 한때를 취리히와 베른에서 보냈다.

지난55년 루마니아망명자들은 베른의 母國대사관을습격, 1명을 살해했으며 3년후에는 2명의 헝가리인들이 역시 그들 모국대사관을 공격했으나 다행히 사망자는없었다.

70년에는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소행이라고 주장된폭발사건이 텔아비브행의 한스위스항공기화물칸에서발생, 4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또 그해에 팔레스타인들에 의해 3대의 서방여객기들이 요르단으로 공중납치됐는데 그중 1대가 스위스비행기였다.

80년2월 스위스주재 터키대사가 베른에서 기관총세례를 받은사건과 81년한 터키 외교관이 젊은 아르메니아人의 습격으로 피살된 사건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教會종소리 정적깨

○…폴란드 대사관주변은 [illegible]찰에 의해 완전히봉쇄됐다. 스위스 경찰특공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건물주위를 물샐틈없이 포위하고있는데 이들은 방탄조끼와 검은색 베레모차림에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있다.

사건발생 하루가 지난 7일 현재 스위스 무장특공대가포위하고있는 가운데 긴장된대치상태가 계속되고있다.

인질들은 별장스타일의 현대식 건물인 폴란드대사관후면쪽에 갇혀있는데 정문은경[illegible]

숨막히는 대치상태의 정적을 깨뜨리는것은 15분마다울리는 페트루스 교회의 종소리와 카메라기자들의 셔터소리뿐이다.

英 空挺隊협조要請

○…스위스 정부는 일단의 무장한 폴란드인들에의해 베른주재 폴란드대사관에 억류돼있는 인질들을 구하기위해 과거 런던주재 이란대사관인질억류사건과 포클랜드 전투때 용맹을떨쳤던 영국육군특수공정대(SAS)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런던에서 발행되는 이브닝·스탠더드紙가 7일 보도했다. 【런던=聯】

波혁명군 現役포함

○…스위스주재 폴란드 대사관을 점거하고있는 이른바 『폴란드 애국혁명군』특공대 지휘관인 자칭 『비소키대령』은 이 조직이 현역및 퇴역 폴란드軍장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것으로 오스트리아의 노이에·크로넨·차이퉁이 7일 보도했다.

美·日 대규모 合同機動훈련

13~21일 東海 北部서 實施

【東京=聯】美日양국은 작년에이어 두번째로 오는13~21일 8일간 유사시 敵선박의 쓰가루(津輕)해협통과저지를 비롯한 1천해리 해상교통로(SEA LAEN)방위등을 목적으로한 대규모 합동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일본해상자위대는 이번美日합동기동훈련은 東海북부와 태평양연안으로부터 硫黃島주변해역에 걸쳐 실시된다고 밝히고 일본측에서는 해상자위대소속 함정80척과 항공기다수 병력1만6천명, 美측에서는 제7함대소속 함정 5척 항공기90여척이 참가하는 대규모훈련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적으로부터 침공당한것을 가상하여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는 특히 對기뢰전및 해상교통로 방위를위한 美日합동 함정·항공기의 동원에 의한 입체작전이 벌어지게되며 미군은 특히 훈련기간중 東京灣에 연한 일본 보소(房總)반도남동쪽 70㎞지점에서 함포사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콩未來 12개項 대처訪中때 通報

【홍콩=聯】중공은 홍콩당국에 홍콩의 장래에 대한 중공의 「공식」입장을 통보했으며 中共黨중앙서기국은 홍콩의 장래에 대한 12개항의 계획을 작성했다고 홍콩·스탠더드紙가 7일 보도했다.

영자지인 이신문은 런던의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중공의 「공식」입장이 홍콩의 한저명한 학자를 통해 홍콩행청에 전달됐으며 이학자는 중공의 한지도자로부터 중공측의 12개항의 계획에 대해 들었으나 그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들은 中共黨主席 胡耀邦이 홍콩에 대한 주권회복을 가장 열렬하게옹호하고 있으나 黨中央委員會의 모든 위원은 홍콩의 주권을 일단 되찾은후에는 행정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중공지도자들이 이달말 마거리트·대처영국수상의 중공방문시 홍콩의 장래에 대한 중공의 계획을 대처수상에게 공식 통보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國際金값 5백달러線돌파

런던·취리히서 買入 열풍

【파리·런던外電=聯】국제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과함께 세계주요 金시장에 불어닥친 金매입열풍은 7일에도 계속돼 런던 취리히등지에서는온스당 5백달러선을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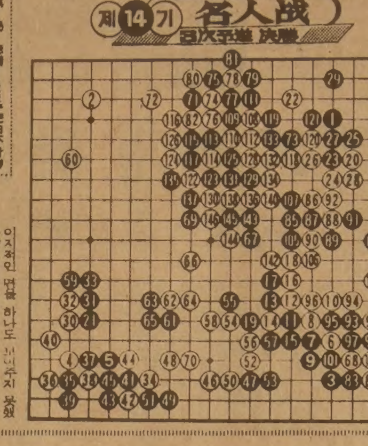
이날 런던金시장에서는 金값이 前場에서 작년4월9일 이래 최고수준인 온스당5백2달러까지 폭등했다가 4백82달러에 폐장됐는데 이는전날 폐장가보다 8달러가 오른 것이다.

취리히金시장에서도 개장직후 5백달러선을 돌파했다가 4백81·5달러에 폐장됐으며 뉴욕에서는 전날보다34달러나 치솟은 4백92달러에 개장됐다.

또 홍콩에서도 전날보다 20달러가 상승한 4백96달러까지 치솟았다.

한국일보 633·2361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1局 總譜—46手完白不計勝 (각4시간·덤5집반)

白(7段)盧 永 夏
黑(6段)洪 鍾 賢

盧7段 本選復歸

이로써 盧7단은 본선에서 탈락한후 1년을 쉬었다가 다시 복귀했다. 원래 제8기부터 출전하여 제9기까지 2년간 활약하다가 탈락하고 1년 걸러 제11기에 복귀했으나 제12기때 슬럼프에 빠져 다시 탈락했다. 마치 무슨 징크스처럼 2년을 하나의 배턴으로 삼는것 같지만 盧7단은 뭐라해도 名人戰단골이다. 『이번에는 도전권을 못따더라도 떨어지진않겠다』며 본선진출의 어려움을 되씹듯이 말한다.

한편 洪6단은 확실히 컨디션이 좋지않았는지 평소의 날카로움이나 이지적인 면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승부처인 상변전투에서 白에게 초읽기를 당하자 정신을 잃은 고 빼이트게 욕심을 [illegible] 아쉬움이 있다.

남은 黑이 7이하로 하변에 대세를 편것은 그렇다하고 白18때 黑19로 白28자리에 선착하며 변화를 꾀하지 않은 것이 완착이었으며 黑25로 26자리에 뻗지않은점도 의문. 미리하여 초전에 뒤만큼 손해를 보았다.

白34에서 38의 비상수단은 하변黑세력 사가한 작전이었는데 이 白의 침입을 黑61로 직접공격한 것이 시기상조며 패인이 된 것이다. 白으로서는 48이 49자리 벗어난 방향착오였을뿐 그 뒤는 白도 의문수와 실수가 없이 치밀하게 마무리지었다. 103…6。 125…114。 139…122。 【一九】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11>

朴婉緒 作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 ⑭

낮이나 밤이나 수영 다한 이십촉짜리 형광등이 먼지같은 빛을 뿌려주지 않으면 사물을 분별할수 없는 굴속의 밤이었다. 그러나 그밤에 사치스러운 크리스마스트리등을 다는 요술을 부릴줄 아는 오목이기에 일환이가 안들어온동안도 불평하기만한건 아니었다. 안쥐여자의 모욕도 견딜만 했다.

그러나 한달만에 집안의돈과 양식은 동이났다. 해산하면 먹으려고 여축해놓은 양식에다 「그날」 일환이가 갖다준 돈까지 보태도 한인이 한달 먹고살기 고작이었다. 어미가 먹지않고는 새끼먹을젖을 넘수없다는 빤한 이치에 그녀는 잔뜩 겁을냈다. 비록 고아였지만 이제까지 언제나 누군가가 책임지고그녀를 먹여주었지 자기가 누구를 책임지고 먹여준 적은 없었다.

그녀는 냉수를 배불리 들이키고 아기를 업고 길을 나섰다.

공복 때문인지 오래간만의 외출이기 때문인지 오목이 보기에 차나 사람뿐 아니라, 서리의 빌딩과 상점들 까지가 어디론지 맹렬한 속도로 흐르는 것같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마치 그 흐름을 거슬러 야하는 것처럼 걸음을 옮기기도 힘겨웠다. 자주 비를 대고 어지럼을 봤다.

쇼윈도를 은종이 금종이로 치장하고 안에선 캐럴이 울려나오는 세모의 상가를 지나 공구상과 수도 난방 청부업자들의 가게가 있는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제서야 오목이는 자신의 볼품없는 발과 초라한 수제와에 신경이 써져 수줍어졌다.

번화가처럼 화려한 크리스머스 장식은 없었지만 그쪽도 겨울이 제 철이라 활기에 차보였다. 바삐 움직이는 기술자들의 남사들을 볼때마다 오목이는 움찔 몸을 숨기려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일환이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냈지만 선뜻 들어가지못하고 건너편에서 한동안 망을 보았다. 일환이의 모습은 눈에 띄지않았다. 처음날 만났던 말이 있는 주인남자가 혁제 책상앞에 앉아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남자곁엔 원통형의 석유난로위에서 큰주전자가 뭉게뭉게 수증기를 뿜어올리고있었다. 원통에 띠처럼 두른 유리부분을통해 안에서 고운불꽃이 넘실대는게 매우 따뜻해보였다.

가게안에 일환이가 없다는게 그녀의 마음을 놓이게 했다. 그녀는 자석에 이끌리듯이 곧장 난로가있는 옆으로 다가갔다. 그곳은 과연 훈훈했다. 가게 속은 예넘어서 석유난로 말고 연탄난로도 있었다.

손님인줄 알고 쳐다본 주인남자의 얼굴이 금새 불쾌하게 찌푸려졌다. 처음부터 과히 인상좋게 보지않은 중년남자가 인정없는 시선으로 오목이의 주제꼴을 훑어내렸다.

그녀는 남루한 꼴은 이미 드러내기로 작정한거니까 별 수없다손치더라도 추위와 굶주림만은 들키지 않아야한다고 이를악물었다. 그러나 곧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던지고 그녀는 눈물먼저 글썽거렸다.

『뭐요? 도대체』

남자가 역정스럽게 물었다.

『저 모르시겠어요? 유일환이 안사람이에요』

『뭐라구? 유군의…』

『네 지난봄에 여기서 봤는데요』

남자가 아까와는 전혀다른 시선으로 오목이를 다시훑어 내렸다. 남자의 눈길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그래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번도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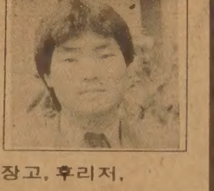
조 의 문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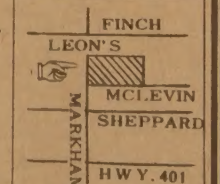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운전자들은 반드시 기억합시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정지하고 있는 학교(스쿨)버스의 반짝이는 붉는 신호가 있을때 양쪽 방향에서 운전하는 모든차는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단지 예외는 중앙에 방벽이있는 여러 차도가 있는 고속도로상의 경우일때 뿐입니다.

새로 제정된 법규는 운전자들에게 스쿨버스뒤에 최소 20미터(약 트랙터-트레일러길이정도) 전방에서 정지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때 벌금을 증액시켰읍니다.

◉벌금 $20-100에서 $100-500로 증액
◉두번째법을 어길경우는$ 250-1,000
◉범법자들은 또한 벌점을 받게됩니다.

당신은 잊으실 것입니까?

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Ontario
James Snow, Minister
William Davis, Prem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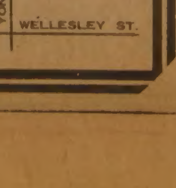
한국인 경영의 최대규모의 꽃집

YONGE FLOWER SHOP

◎ 각종 PLANTS, 어랜지먼트, CUT FLOWER, SOIL 취급.
◎ 결혼·장례·생일·파티등 화환전문 (일류 FLOWER 전문가)

토론토 전지역 배달……

589 YONGE ST.
(ONE BLOCK NORTH OF WELLESLEY ST.)
☎ : 960-6265 MR. 김



現實어두운「交通사고特例法」

虛點 투성이

갖가지 事故類型 반영 안돼

檢·警서 條文해석싸고 混線

惡法 안되게 통일된 細部지침마련등 對策시급

安全표지 위반인가 아닌가 〈人道돌진사고〉

빗금與否·범위등 해석달라 〈橫斷路의 定義〉

세발자전거타도 走行인가 〈자전거사고〉

無免許운전 檢·警의견맞서 〈耕耘機사고〉

乘下車사고 운전사만 보호 〈案內孃과실〉

검찰수사에서 물의가컸던「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검찰의 사건처리단계에서도 지검마다 해석이 다르고 검사마다 기준이달라 혼선이 가중되고있다。 검사들은 이법을 보완하지않으면 입법취지 — 를 살리기는 커녕 교통사범처리에관한 악법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빠른시일내에 전국적으로 통일된지침을 내리는등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고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공포를 해소, 손수운전을 권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입법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사고의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제정됐기때문에 현실적으로 교통사고에 적용될때 미흡한 점이 계속 노출되고있는것。

즉 이법 제3조에「사망사고외」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을 때는 운전자가 ▲안전표지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추월운전▲건널목통과방법위반▲횡단보도상 보행자보호의무위반▲무면허운전▲음주 또는 약물중독운전등 8개중과실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한『공소를 제기할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규정에포함되지않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입법취지대로 운전자를보호하기 위해 엄격한「물리적해석」을 할것이냐、우리나라의 제반여건을 감안해 피해자를 보호하기위해「유추해석」을 할것이냐를 놓고 고심하고있는것이다。

◇인도돌진 사고

차량이 인도에 뛰어들어사고를 냈을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검사들 가운데는 예외규정 1호의 안전표지위반으로 보아 운전자를 처벌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대부분의 검사들은 도로교통법상의「안전표지」란『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칙·지시·인도(引導)를 표시하는 표지판과 노면에 표시하는 기호·문자·선』이란 점을들어 인도와 차도의 단순한 구분선을 안전표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형사고일수도 있는 인도돌진사고에대해 큰헛점이 드러나있는데 서울지검의 경우에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이상『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것으로 합의된 상태다。

◇횡단보도의 정의

서울지검 南部지청은 지난3일 횡단보도표지판에서 3·5m떨어진 곳에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승용차운전사 趙榮會씨(32)에 대한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기각이유는『횡단보도 빗금이 없어 표지판만 있는 곳은 횡단보도로 볼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도록 안전표지에 의해 표시된 도로의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빗금「부분」이 없이 표지판만 서있는 곳은 횡단보도가 아니다。

이경우는 표지판만 세워놓은 행정청의 잘못이 크지만 검찰도 지나친 물리적해석을 한게아니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또 빗금으로 횡단표시가 돼있다해도 사고지점에따라 처리내용이 각 지검마다 다른 실정。

보행인들이 대부분 횡단보도를 다 걸어와서는 약간 차도쪽으로해서 인도로 올라서는「관행」이 많은점을 들어 인도에 인접한 횡단보도1~2m밖 사고는 횡단보도사고로처리하는 지검도있으나 서울지검에서는 이를 엄격히해석하고있다。

◇자전거 사고

서울지검 南部지청은 지난달25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운전사 金榮東씨(33)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기각이유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제차(諸車)」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수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검사들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주행」이 아니고「횡단」이었다고 본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검사들 가운데는『세발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을때 보행자로 볼수없어 운전자를 처벌할수없는 모순을 낳게된다』고까지 지적하고있다。

반대로 자전거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냈을때도 운전자를 처벌할 규정이없다。

「8개 예외조항」중 제8호는 음주 또는 약물중독 상태에서「자동차등」을 운전한경우로 규정하고있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만 해당할뿐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이다。

◇경운기 사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경운기운전자도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면허를 취득하도록 돼있으나 그 시행령이 없어 면허취득할 방법이 없다。

경찰은 경운기가 교통사고를 냈을경우 무면허운전조항을들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있으나 검찰은 사고에대해서는「공소권없음」、무면허는「무혐의」로 처리하고 있다。

◇안내양의 과실

주행중 차내안전사고나 승하차시의 사고로 승객이 다쳤을때 과실은 운전사·안내양 모두에게 있는데도 특례법은 운전자만을 보호하고 안내양은 처벌을 받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崔奎植기자】

勤勞者스카우트 함부로 못한다

노동부 월10명넘으면 企業主 강력제재

퇴직할땐 30일전 通告해야

앞으로 근로자가 퇴직코자할때는 사용자에게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 또 상습적으로 타회사의 근로자를 월10명이상 스카우트하는 기업주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강력한 제재를 받게된다。

노동부가 8일 기업들의근로자과열스카우트를 막기위해 마련한「부당인력스카우트방지책」에 의하면 고용질서를 확립해나가기위해 이직근로자는 30일전에 회사측에 통보해야한다는「퇴직예고조항」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근로계약상에 넣도록하는 한편 스카우트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내훈련실시비율을 인상조정하는등 강력히 규제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이직의사가없는 자를 유혹하는등 적극적인방법으로 유인하거나▲한꺼번에 1개생산라인을 이동케함으로써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케하고▲동업종 다른기업에서 자체양성된 기능자를 영입、해당생산계획에 지장을주며▲스카우트를 통해 기술정보를 입수、경쟁사의 거래선을 침식하는경우등을 반윤리적 스카우트행위로보고 중점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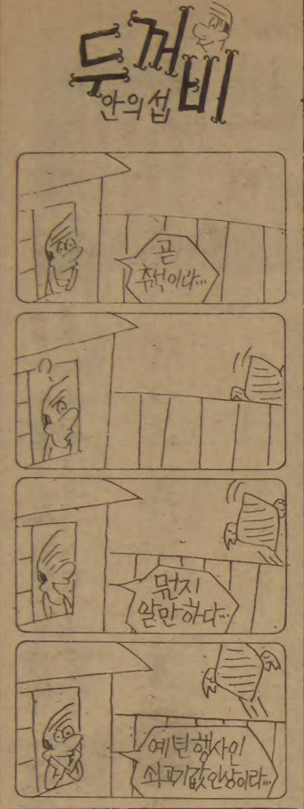
노동부는 이를 위해 이미 경영자총협회에 설치돼 있는 고용윤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과열스카우트에 의한 피해기업의 신고를 받아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재를 강화하고 업종별 단체 또는 동종업체간에 자율적으로 스카우트방지협정을 맺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스카우트를일삼는 업체에대해서는 사내훈련실시비율을 인상하고 훈련지도를 강화하여 필요한인력을 스스로양성관리하도록 기업풍토를 조성하며 기업의 근로자모집에 대한 노동부신고체제를 강화하고 통근지역밖의 근로자를채용할때는 부당한 스카우트인지의 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했다。

버스토큰 훔쳐 안내양 둘令狀

서울江南경찰서는 8일 버스토큰을 훔쳐온 동양교통소속 시내버스 안내양 金幸順(26)·朴文女양(20)등 2명을 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토큰을받아 시중에 팔아온 趙在坤씨(37)등 2명은 상습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 안내양들은 손님으로부터받은 토큰을 토큰함에 넣지않고 챙기는 수법으로 金양이 17차례에걸쳐 1천5백여개를 빼낸것을비롯 지난1년동안 모두 토큰60만개(6천6백만원상당)를 빼내 팔아왔다는 것이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목거리, 팔지,
B536-1692
H245-3539

"아버님 뜻이을 조그만정성"

독립기념관誠金 독립투사의딸 崔順化할머니

光復軍지휘 日警과接戰순국 아들도6·25때祖國에몸바쳐

독립투사의 딸 崔順化할머니(사진·65·경기도華城郡西新面梅花里361의1)가 한평생 푼푼히 모은 돈 50만원을 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내놓았다。

崔할머니의 한평생에는 식민지의 恨이 응축되어있다。

할머니의 선친은 항일독립투사 崔昌五씨。崔씨는 고향인 黃海道長淵郡에서 독립군 九月山隊를 지휘하다가 왜경과의 접전에서 순국했다。

할머니가 5세나던 해였다。 아버지와 아저씨들이 왜경을 맞아 싸우는 총소리가 온 들판에 가득하던 날 어머니는 어린딸을 안고『아버지가 할일을 시작하셨다』고 말했었다고 한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형체를 알아볼수조차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숨져 주민들의 지게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어머니는『아버지가 할일을 마치셨다』고 어린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집 뒤뜰에 비밀 땅굴을 파놓고 부상당한 동료독립투사들을 숨겨놓고 치료를 해주었고 조총등 무기도 그 속에 감추어두고 있었다。 아버지가 순국한뒤 어머니는 왜경에 끌려다니며 모진 고문을 당한끝에 돌아갔고、그후 崔할머니는 黃海道 산악지방으로 숨어든 독립투사의 유가족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밥을 얻어먹고 자랐다。

崔할머니는 결혼후 슬하에 아들 1명을 두었으나 6·25동란에 참전、백령도 전투에서 역시 순국했다。

아들과 아버지를 모두 나라에 바친 崔할머니는 경기華城郡에서 작은 여인숙을 경영하면서 혈혈단신으로 살아가고있다。 영세민구호용 양곡과 연료비를 아껴 한평생모아둔 50만원을 싸들고 한국일보社를 찾아온 崔할머니는『독립기념관을지어 恨을풀어달라』며 오열을터뜨렸다。

韓人유골발굴 실패

關東大地震때 학살…작업중단

【東京=聯合】59년전 關東대지진때 일본인에 의해 무참히 학살돼 東京都 아라가와(荒川) 하천에 집단매장된『한국인유골을 발굴하여 위령하는 會』(대표 야마다(山田))는 7일하오 유골을 끝내 찾아내지 못한채 작업을 중단했다。

이 단체는 지난2일부터 이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국인유골이 묻힌 곳으로 예상되는 3개지점을 선정、굴착작업을 벌였으나 유골발굴에 실패하자 동회의 대표인 야마다교수는 7일 일단 1차발굴작업을 끝낸다고 말하고 앞으로 한국인이 매장된 장소를 충분히 파악한뒤 제2차작업을 벌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뇌염환자가 급증, 병상이 부족하다。99명의 환자가입원, 치료를받고있는 朝鮮大병원은 병상이포화상태를이루자 7일부터는 의대강당에 임시병동을마련해 치료를하고있다。【光州=聯合】

방세 안낸다고 집주인이 구들장 깨

어린이 가스中毒死

【城南】城南경찰서는 8일 자기집에 세들어사는 사람이 방세를 내지않는데 앙심을품고 구들장을깨 4세어린이를 연탄가스에 중독、숨지게한 홍만섬씨(40·城南市 銀杏2洞 61의5)를 중과실 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홍씨는 지난해10월24일 보증금 10만원에 월세1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자기집 아랫방에세든 박옥주여인(30)이 11개월동안 월세를 내지않자 지난3일상오 아무도없는 박여인방에 들어가 비닐장판을걷어내고 곡괭이로 방구들을 3번찍어 연탄가스가 새어나오게 한후 비닐장판을 다시 덮어놓았다는 것。

그런데 이틀후인 지난5일하오 4시께 옆방에 세들어사는 육기자여인(38)이 자기방에 연탄불을 피우는 바람에 박여인방구들밑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낮잠을 자던 박여인의 3녀 이희옥양(4)이 연탄가스에 중독 숨졌다는 것。【聯合】

全南 뇌염患者 늘어나도

病床만원 收容못해

【光州】지난 77년이래 최고의 뇌염증세 환자가 발생한 전남지방에서는 최근 병원마다 환자수가 수용능력을 초과해 더이상 환자를 수용할수없는 어려움을 겪고있다。

99명의 뇌염증세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朝鮮大병원은 8일 소아과와 내과등 모든 병상이 포화상태를 이루자 의대강당에 특별병상까지 긴급설치, 28명의 환자를 수용했으나 그나마 환자수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1백39명의 뇌염증세환자가 입원하고있는 全南大병원도 지난달 중순께부터 복도에까지 병상을 마련하는등 환자수용을 위한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계속 몰려드는 환자들로 병원내부가 큰 혼잡을 빚고있다。

도내에서는 지난7월25일 莞島에서 첫 뇌염증세환자가 발생한것을 시작으로 이날현재까지 全南大병원에 1백39명, 朝鮮大병원 99명, 光州기독병원 83명, 木浦시내 3개병원 97명등 도내 8개 종합병원에 모두 4백50여명의 뇌염환자가 입원、이중 40여명이 사망한것으로 집계되고 있다。【聯合】

腦災증세 또둘숨져

【全州】裡里시와 完州郡에서 의사뇌염증세를 앓아오던 2명의 어린이가 또 숨졌다。

8일 도보건당국에 따르면 7일 裡里 圓光大부속병원에서 의사뇌염증세로 입원중이던 裡里市銅山洞 유모군(8)과 전북의대 부속병원에 입원해있던 完州郡九耳面 김모군(7)이 숨졌다。【聯合】

釜山美문화원에 불 보수작업중 가스새

【釜山】8일하오2시45분께 부산시中區大廳洞3의23 미문화원1층 내부수리장에서 용접용 아세틸렌가스가폭발, 불이났으나 10분만에 진화됐다。

이날불은 지난3월18일 미문화원화재사건으로 불탄 도서열람실에서 보수작업을 하기위해 한일배관측이 아세틸렌가스로 용접을하던중 가스통에서 새어나온 아세틸렌가스에 용접불꽃이튀어 폭발과 함께 합판등 건축자재에 불이붙었으나 긴급출동한 소방대에의해 10분만에 꺼졌다。【聯合】

李·張사건 항소심 재판부 결정

李哲熙·張玲子부부어음사기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朴萬浩부장판사 주심李根雄 배석金權澤판사)가 맡게됐다。【聯合】

趙治勳-오오다께 名人戰 도전1局

【東京8日=宋孝彬특파원】제7기 名人戰(朝日新聞주최)도전7번기중 제1국이 8일 東京에서 趙治勳名人과 도전자인 오오다께(大竹英雄)9단간에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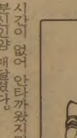
오오다께9단은 최근 碁聖戰에서 도전자인趙名人을 3대2로 물리치는등 호조를보여 이번名人戰도전기는 팽팽한 싸움이될것이라고 일본바둑계는 보고있다。

1국의 승부는 9일저녁때쯤에야 판명될것으로보인다。

恨과 꿈

제3회 노동문화제 大賞 韓美淑양

못배운 설움 手藝로 불태워



제3회 노동문화제에서「長生圖」수병풍으로 대상을 차지한 여성근로자 韓美淑양(18·사진·삼우트레이딩 기계자수과)은 일하며 배우는 산업역군。

韓양은 근로자들의 취미활동을 살리기 위해 마련된 노동문화제(9~15일)에 세로 1백12㎝、가로 3백18·5㎝의 8曲수병풍을 출품、4천4백10점을 물리치고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韓양은 지난2년동안 자신의 恨과 꿈등 모든것을「長生圖」수(繡)에 불태웠다。 틈만 있으면 수틀을 붙잡고 고달픔과 외로움을 한뜸한뜸으로 달랬다。 낮에는일하고 밤에는 산업체부설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 안타까왔지만 자신의 분신인양 매달렸다。

韓양의 작품은 이번문화제에서 구름사슴·학등 十長生이 섬세하고 생동감있게 조화를 이루고있다는 심사위원들의 일치된 찬사를받았다。

韓양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진학을 포기한 恨을 지니고 14세의 어린나이에 이 회사에 취업했다。 벌어서 못배운 아픔을 풀겠다는 독한 꿈을 안고 4년전 상경한 것이다。

韓양이 수예를 시작한것은 취미생활을 장려하는 회사측의 배려가컸다。 회사측은 근로자들이 정서를 함양하고 여가를 선용할수 있도록 취미교실을 운영했다。

韓양은 수예를 택했다。 고향이 수예의 고장인 전북 淳昌인 그는 어렸을때 어머니가 수놓는것을 보고 흉내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그런지 수틀만 잡으면 모든 잡념이 사라졌다。 주위에서도 온순한 성격에다 집념이 강해 수놓는데는 적격이라고 북돋워 주었다。

소품 몇개를 수놓아보고 2년전 민화에서 본「長生圖」를 시작했다。 생각처럼 쉽지않았다。 날으는 학이나 파도와 잔잔한 물결의 차이를묘

사할 때는 색의 배합이 안돼 몇번이나 뜯었다。 밤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를 놓다 손등을 바늘에 찔린일도 여러번이며 지금도 상처가 남아있다。

그러나 수틀에 매달린 덕분에 돈을 쓸 기회가 적어 고향 동생들 학비를 보내줄수 있었고 자신도 어느사이엔가 중학교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과정에 들어간것도 더없는 기쁨이었다。 말하자면「기쁨」이「기쁨」을 낳은것 같았다。【盧基昌기자】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하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 · 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亞洲「技巧」가 南美의「힘」깼다

日、도미니카 꺾고 先頭에

27회 세계野球선수권대회

제 5 일

일반의예상을 뒤엎고 기교를 위주로한 아시아야구가 歐美의 힘을 바탕으로한 야구를 제치고 살얼음처럼 불안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이 自由中國과 우승의향방을 가리는 중요한 일전을 앞둔 가운데 日本은8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 대회 5일째 경기에서 4번 다께쓰에(武居)의 2타점 결승타를 비롯한 10안타와 도미니카의 5실책에 편승, 6—3으로 이겨 3승1패의 단독선두에 나섰다。仁川경기에서 美國은 9회말 마지막 공격서 5번 쥼의 2타점 결승타를 포함한 4안타로 파나마에 7—6의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3승2패를 기록했다。연속3패로 최하위에 처졌던 濠洲는 잠실구장에서 2회말 5번 롱슨의 중월 3루타를 비롯한 소나기 6안타를 퍼부어 5득점, 초반에 대세를 결정지어 한국·自由中國·日本과 함께 전날까지 2승1패로 선전하던 네덜란드를 6—2로 격파하고 첫승리를기록했다。

최하위濠、和蘭격파 첫승리

日本—도미니카

日本과 도깨비 방망이와같은 괴력을 가진 도미니카의 대전은 동·서양 야구의 표본적인 대조를 보여주었다。세기와 착실한 수비를 바탕으로 하는 日本은 적시에 7개의 단타와 3개의 2루타로 6점을거둬 들였으며 도미니카는 2개의 홈런과 단타 3개로 3득점에 그쳤다。

日本의 승리는 적시타와함께 도미니카의 잇단수비실책에 힘입은것이었다。도미니카는 1·2·3루수 유격수 등 수비일선에 나선 내야진들이 차례로범실, 5개의 실책으로 자멸했다。반면 日本은 한번의 수비범실로 출루를 허용했던 도미니카주자를 견제구로 잡아내 짜임새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日本은 1회초 선두1번고바야시가 좌전안타로나가투수 보크와 보내기번트·2死후 4번 다께스에의 내야안타로 선제점을 기록했다。

4회초에는 1死후 좌월2루타로 출루했던 3루주자 나까야(中屋)와 2死후 포볼로 나간 1루주자 아오시마(靑島)가 절묘한 더블스틸을 성공시켜 1점을 추가, 도미니카 수비진의 얼을 뺏다。

日本은 5회초 2死후에2번 구니야마(國山)가 1루수 실책으로, 3번 나까모도(中本)가 좌월 2루타로 2·3루의 찬스를만든후 4번 다께스에의 좌전결승2타점적시타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도미니카는 5회말 5번 고메쓰 1死후 7번 메르세데스의 안타로 모처럼 만든 1·3루 찬스에서 8번 마르티네스가 센터희생 플라이를때려 1점을 만회하고 8회말 메르세데스의 좌월솔로홈런과 9회말 2번 크리스핀의 좌월홈런으로 2점을추가했다。

◇제5일전적

◆서울운

일본	100	120	020	6
도미니카	000	010	011	3

▲홈런=메르세데스(8회) 크리스틴(9회·이상 도미니카) ▲안타=일본10—5도미니카

◆인천구장

파나마	010	400	010	6
미국	000	100	204	7

▲안타수=파나마13—8미국

◆잠실구장

네덜란드	000	100	010	2
호주	050	001	00×	6

▲안타=네덜란드7—11호주

◇유격수는 마치 曲藝師

日本—도미니카 대전。日本공격 3회초 1死후 고바야시(小林)가 좌전안타를 치고나가 2루 에스틸, 세이프되고있다。도미니카 유격수는 크리스핀。

도미니카 内野陣 에러行進

美 9회말 파나마에 극적逆轉

한국 타이記錄 2개

공기권총 任泰鎬 소구경복사 金英美

전국사격대회

제7회 육군참모총장기쟁탈 전국사격대회 이틀째 경기가 8일 泰陵 종합 사격장서 속행, 여자 소구경복사서 金英美(한일은행)는 5백95점으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웠다。또한 남일반 공기권총서 任泰鎬(지도단)는 5백78점을 기록, 역시 한국타이를 마크했다。

이날 현재 한국신 4、한국타이 2、대회신 10、대회타이 8개가 작성되었다。

◇제2일기록

▲여일반공기권총=①文良子(지도단) 380(대회신) ▲사회단체공기권총혼성=①경기교통2、265(대회신) ▲남대공기권총단체=①한체대2、187②인천대2、171③조선대2、129(이상대회신) ▲동개인=①최은식(경희대) 563(대회신)

한국배구팀 美에 첫패배

친선경기서

【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州)=UPI聯合】한국남자배구대표팀은 7일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된 미국대표팀과의 친선경기 제1차전에서 2—1로 패배했다。

한국팀은 앞으로 4번의 친선경기를 갖게되는데 제2차전은 8일저녁 프레즈노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미국 2 (15—8 15—17 15—11) 1 한국

〈국제競技聯盟〉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 Ⓟ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1982~83학년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개강안내

◇기 간 : 1982년 9월25일부터 1983년6월18일까지(32주간)
◇시 간 : 매주 토요일 아침10시부터 12시까지
◇장 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DALE AVE. (쎄인·클레어×영)
◇자 격 : 고등반부터 성인반까지
◇프로그램 :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기초반)
오전11시부터 12시까지 (연구반)
◇지도내용 : 기초반—기본동작 I、화관무、아리랑환상곡、즉흥무
연구반—기본동작II·III、부채춤、살풀이、탈춤、장고춤
◇복 장 : 움직이기에 편한 복장과 덧신
◇수 업 료 : 32주간에 $160
4주간씩 나누어 등록하실 경우(시간당 10달러)
◇신청장소 : 위의 장소에서 9월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접수.
◇문의전화 : 김미영 : 499—5079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주간女性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 중 무 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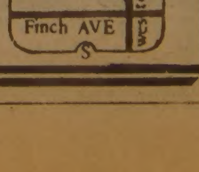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한국 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쿠러 시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illegible] 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illegible]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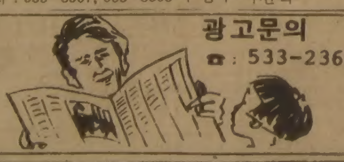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김 용 환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가베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 삼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신 추봉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대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Rd. (OakWood Ave×Davenport)
전화 : 656-3020

주말 유경험자 Helper 구함
(남·녀 관계 없음) 낮12시~밤11시
1114 Yonge St.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Mon.-Fri. 11:00a.m.-3:00p.m.
전화 : 368-2470 (after 2:00 p.m.)

GROCERY에서 Cashier 하실분과 HELPER
구함. (단, 유경험자 여자분에 한함)
전화 : 598-2546

Hamburger 식당 HELPER 구함.(남자분 환영)
영어대화 필수. FULL TIME.
5608 YONGE ST. 내방바람. (HOT CORNER)

남자 스토아 헬퍼 Full Time.
남·녀 Part Time 캐쉬어 구함.
학생도 가능함. 625-1620(미시사가 지역)

가게 학생 Helper 구함.
매일 학교수업후 2시간~3시간씩 Help 요!
Kipling & Albion 지역. 전화 : 741-7692

First Canadian Place에 있는 Juice Bar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여자분 구함(18세-25세) 월-금(주말은 쉼)
전화 : 438-0403(6시이후 Mrs. 유)

남자 Store Helper 구함
무료로 숙소도 제공
전화 : 488-1634

유경험자 Helper구함(남자분)
Grocery Store(채소 & 과일)
전화 : 597-1115(오전 8-10시사이)

Downtown에 사시는 분으로서 하루 3~4시간씩
집안일 도와 주실 여자분.(Bloor + Jane지역)
전화 : 769-4366 오후6시 이후 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조흥은행	363-3448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개인지도

PIANO, THEORY & SINGING LESSONS
AFTER 5 p.m. 2284 DUFFERIN ST.
PHONE 787-0007 PROFESSOR MORFEA

매매

★Bargain Variety
현대식 Plaza(at Oshawa Main St.) 2,400 sq.ft.
주매상 : $7,000. 장래전망 최고.
최저의 가격으로 팔고자함. $59,000+stock.
★ High Volume Convenience Store.
성업중이며 매우 바쁜거리에 있는 Plaza안에 있음.(Oshawa)
주인이 새로운 Business를 하기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팔고자 함.
$60,000+stock. 6년 리스

Bagot Realty Inc. (Realtor)
Phone : 1-579-4010
after hours Frank Magnus 683-8154

Brick Building + Variety & Grocery
아스킹 : $129,900.(West Toronto)
A.E.LePAGE
Chaherine Ryerson
전화:537-3431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가정사정으로 부득이 앞으로 전망좋은 휜취×웨스턴 펄안에 있는 쌍방울 메리야스 가게(애기옷, 베드스프레드, 담요, 카페트)를 매매코저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애기옷 0-6살까지〉 3467 Finch West Mall
전화 : 746-3458 Mrs.윤

카메라 상점 급매
691 Bloor st. W
전화 : 534-1085 Mr.김

다운 Town Mall안에 있는 가게를 일손이 모자라 급히 팔고자 함. 옷과Variety 겸함. (혼자서 운영가능)
전화 : 536-1914 (Mr. Yong)

Restaurant for Sale,
near the Christie Subway, Fully equipped.
Fully licenced under L.L.B.O.
Immediate Occupancy Reasonable Price.
Ask Miss Yen. 536-6769 or 532-7489

SERVICE STATION
2. BAY GARAGE-SNACK BAR.
Highway 10 North of Brampton
One Acre Corner Lot. $80,000.
Down Payment. Mr. William.
251-4656 Albany Real Estate Ltd.

베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해밀톤〉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2층살림가능.
전화 : 1-527-6974

Variety Store, no grocery
3447 St.Clair Ave. E.(at Birchmount)
전화 : 265-9000

새 Store 양도(New Plaza) 전망좋은 가게를 사정에 의하여 양도 코져함 새로 Set up 하실분.
전화 : 532-7421 Mr.서

발전성 있는 가게임. 현재 주매상 : $3,000
리스 : 5년 + 5년
전화 : 466-7698 Mr. Lee

소매상점을 짓기에 대단히 좋은 지역임(New Market)
5,000Sq.ft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
135.ft.(전면) by 140 ft. 전화 : 889-2075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은 쉼). 5년 리스
23 Helen St. Missi. Ont. 전화 : 274-7010

Variety Store
주매상 : $4,200.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0,000+스탁
Rent: $600. 전화 : 266-7833 Mr. Kim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집렌트

House for Rent. (3 Bes Rm.: 6 Rms)
31 Barton Ave. near Bathurst. 가격은 드는 사람에 따라 적당히 조정될 수 있음. 447-1869 (Mr. Don Fenton)

아파트렌트

단기·장기간에 상관없이 방 Rent하실분. 특히 여행하시는 분들에겐 더없이 편리한 여건임. 693 Bloor St. W.
(Christie Subway옆 아리랑식당앞)

방세 놓음. Pape Subway에서 1 Block 거리.
노인부부 혹은 여자분 환영함. $260/M.
전화 : 282-0236, 968-6284

방세 놓읍니다.(곧 입주가능)
2-Bed Room(Keele St. & St. Clair) 1-Bed Room
(Dundas & George St.) 전화 : 226-2077, 763-3289

가게렌트

Variety 혹은 Grocery Store에 적합한
빈 Space Rent 합니다. 1500 sq.ft.
774 St.Clair W.로 직접 내방 바람.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수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1-2311 조 의 순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illegible]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1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초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 ~ 금: 오전9시 - 오후8시, 토: 오전9시 - 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쇼어×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